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

FAITH &  
LIFE

# 신앙과 삶

7+8  
JUL + AUG  
2026 vol.42

특집

## AI 시대의 창조론 토크아보기



사람 사이 양승훈 에스와티니 기독교과대학교 총장

청년 시론 작품은 창작자를, 사람은 창조주를

문화로 세상 보기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창조성을 다시 묻다



ISSN 2671-8731

# Contents

JULY + AUGUST · 2026

## 시선

창조를 사실로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 손봉호 02

## 편집장의 말

창조의 진리를 풍성하고 은혜롭게 이해할 바른 관점의 모색 | 신국원 04

## 특집

### AI 시대의 창조론 톺아보기

두 개의 시계, 하나의 진리 :

물리학자가 바라본 창조의 대서사시 | 제원호 06

‘창조냐 진화냐’에 대한 내 생각은 이렇게 진화했다 | 이윤석 08

2000년대 중후반

KAIST RACS 회원의 눈으로 본 지적설계 | 홍성욱 10

진화론은 정말 창조 신앙의 적(敵)일까?

유신진화론이 던지는 새로운 질문 | 정대경 12

창조의 섭리 안에 담긴 진화 | 우종학 14

AI 시대, 참된 인간됨을 드러내는 교회를 소망하며 | 차수진 16

AI시대 창조론적 유전자 기원 연구 | 김아람 18

AI 시대 과학연구의 기독교 세계관적 접근 | 강윤희 20

AI 및 빅데이터 시대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탐구하는 유전체학자 | 이화진 22

## 사람 사이

양승훈 에스와티니 기독교과대학교 총장 24

## 섬김의 자리에서

‘집의’(執義) - 믿음의 가치 : 새벽을 깨우는 신앙의 힘 | 윤태형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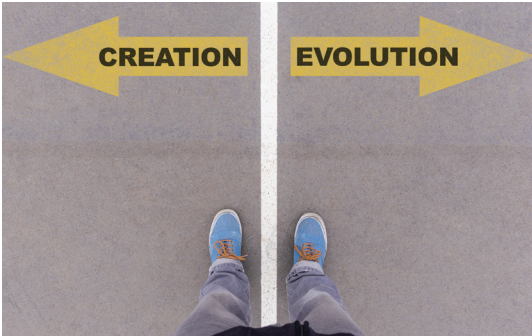


2026. 7+8월호 | 제42호(통권 257호)

〈신앙과 삶〉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로서 회원 간의 교제와 나눔의 장으로, 우리 시대 문화와 사회의 정신적 토대를 성찰하고, 그 안에 배어 있는 반기독교적 요소들을 경계하며,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쓰임 받고자 합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청년, 삶을 고민하다

청년 시론	
작품은 창작자를, 사람은 창조주를   오주영	30
청년 일터 이야기	
주님은 저의 스펙이십니다   김지은	32
관계로 이끄시는 하나님   문지명	34

## 문화로 세상 보기

영화를 보다	
지적설계론을 주장할 수 있는 학문의 자유를 묻다   강진구	36
미술을 보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창조성을 다시 묻다   서성록	38
책을 보다	
신앙과 학문의 통일성을 향한 친절한 초대   김남국	40
장밋빛 기대 뒤에 숨은 재앙의 그림자   오석현	42
경청의 정치 공동체를 만드는 교회   정명현	44

## 교회 路

서울중앙교회 '현대문화 알아가기' 프로그램 소개	
'현대 문화 알아가기' 프로그램에 대하여   김남언	46
소감문 :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관점의 선물을 받았다   안순호	
성도들과 함께 배우는 기쁨   박혜련	47

## 온전한 지성

프리드리히 폰 보델슈빙 부자(父子)의 성경적 세계관(2)   최용준	48
AI 시대 창조론 톺아보기	
2026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	50

## 소식

사무국/관련기관 소식	52
재정보고/후원자보고	54



# 창조를 사실로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손봉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십자가라 할 수 있다. 그 둘 중에서도 복음주의 교회들은 십자가 구속을 중요시하는 반면 칼뱅주의의 영향을 받은 개혁주의 교회와 특히 기독교 세계관에 관심을 가지는 신칼뱅주의는 창조에 좀 더 무게를 둔다. 십자가의 구속에 관심을 두면 불가피하게 죄의 심각성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회개와 전도가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며 세계관이 다소 이원론적이 될 수 있다. 반면 창조에 초점을 두면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하나님 영광을 강조하고 신앙생활의 중심이 정의와 사랑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놓이게 된다.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복음주의적이다. 아직도 기독교 역사가 길지 않고 전통 문화는 기독교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교회 사역의 중심은 전도, 선교, 교회 확장에 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하나님 나라 중심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십자가 못지않게 창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 창조에 비하면 최근이라 할 수

있는 2000여 년 전에 일어났고, 그것은 매우 독특한 의미와 해석의 대상일 뿐 과학적 시비의 대상이 될 사실의 문제가 아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달리 창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현대 과학의 기본 법칙인 인과론적 설명이 개입될 수 있는 사실의 영역에 속하고, 그 내용은 과학계에 거의 정설처럼 수용되고 있는 빅뱅(big bang) 가설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현대 사회 모든 구성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젯거리가 될 수 있다. 성경에 기록된 창조 사건에 대해서 최근 기독교계에 제시된 이론들은 ‘젊은 지구론’, ‘오래된 지구론’, ‘유신 진화론’, ‘지적설계론’ 등이 있다고 한다. 그 이론들은 당연히 창세기의 기록에 근거해 있지만 동시에 현대 과학의 주장을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참고한 것들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자신의 것과 다른 이론을 비성경적이라고 비판하는 경우가 없지 않고, 심지어 신학대학에서 교수 직위 박탈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모두가 가설일 뿐 그 어느 것도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았고 앞으로 증명될 가능성도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감안해야 할 것은 창세기

를 기록한 언어는 과학적 언어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 쓰였다는 사실이다. 신라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언어는 오늘에 사는 한국인에게 외국어와 다름없었을 것이다. 같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전에 살았던 모세 혹은 다른 필자가 그 자신으로부터도 아득하게 먼 옛날 사건을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성경이 어느 특정한 시대가 아니라 모든 시대 사람들이 읽는다는 것을 전제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이다. 창세기가 만약 오늘날의 언어로 기록되었다라면 자연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옛날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칼뱅의 지적은 참고할 만하다. “어느 정도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치 유모가 아기에 하듯 말을 좀 더듬으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는가?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표현하기보다는 그에 대한 이해를 우리의 부족한 능력에 알맞게 적응시키신 것이다”(기독교강요 1권 13장 1절). 이를 창세기에 적용해서 말하자면 창세기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 이해할 정도로만,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올바로 순종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될 만큼만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창세기는 우리가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기록되었을까? 지금처럼 하루가 24시간이란 사실과 세상은 1주일 안에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리려 했을까? 세상이 꼭 몇 년 전에 창조되었다는 것을 가르치려 했을까?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꼭 가르치려 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려 하는 것은 창세의 사실이 지 창세의 방법이 아니라고 믿는다. 하나님은 무(無

)로부터 유(有)를 창조하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며 자연은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란 사실, 아담과 하와 같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러므로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우월하고 귀중하다는 사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고통이 시작되고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할 만큼 범죄했다는 사실 등이 아닐까? 만약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쳐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만큼 중요했다면, 성경은 오늘날 학자들이 서로 논쟁해야 할 만큼 애매하게 쓰이지 않았을 것이다.

한때 교계에서는 예정설로 분란이 일어났고, 유아세례 문제로 교회가 갈라졌다. 그 후유증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오늘의 교계에서는 그때처럼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지는 않다. 창조에 대한 의견 차이는 예정설이나 유아세례만큼 중요하지 않다. 사도신경이나 교단의 신앙고백에 들어갈 만큼 기독교 신앙에 본적이지 않다.

창세기와 관련해서 현대교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오히려 “땅을 정복하라”(창 1:28)는 구절의 재해석이고 그 구절 때문에 악화된 환경오염이 전 인류에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는가를 반성하고 그에 맞게 생활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손봉호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 기아대책 이사장을 역임했다. 도산인상, 국민훈장 모란장, 서울대 사회봉사상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로도 섬기고 있다.

# 창조의 진리를 풍성하고 은혜롭게 이해할 바른 관점의 모색

신국원 (<신앙과 삶> 편집장)

창조론을 다룬 춘계학회가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다양한 입장의 대표자들이 치열한 토론을 벌였으나 삼위 하나님의 창조를 사도신경처럼 함께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시선>도 창세기는 세상의 기원에 대한 과학적 이론보다 창조주의 절대주권을 믿음에 따른 바른 삶을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특집>의 제원호 교수(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는 한국교회 내 창조론 논쟁이 시간 이해의 오해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충돌임을 지적하며 성경의 권위를 신뢰하면서도 과학의 성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창조의 신비를 더 넓게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윤석 박사(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 원장)는 ‘오래된 지구론’을 수용하면서도 다양한 창조론을 겸손한 ‘작업가설’로 이해해야 하며, 열린 마음으로 창조세계를 탐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홍성욱 박사(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는 지적설계가 과학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려는 시도는 여전히 의미 있다고 강조합니다.

정대경 교수(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교수)는 창조 기사를 과학 교과서가 아닌 신앙고백으로 이해해야 하며, 자연과학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신학적 자산으로 ‘유신진화론’을 제시합니다. 우종학 교수(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도 진화를 하나님의 창조 방법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제시하며, 신학은 과학과 대화하면서 창조 이해를 성숙시켜야 할 것

을 주장합니다. 차수진 교수(한양대 류마티즘 연구원 연구교수)는 모든 창조론이 불완전한 인간의 해석일 뿐이며, 교회는 신앙과 과학을 조화롭게 가르쳐 다음 세대가 혼란 없이 신앙을 이어가도록 할 책임을 강조합니다.

강윤희 교수(백석대 컴퓨터공학 교수)는 AI와 디지털 생물학 연구가 제4의 과학 패러다임 속에서 창조와 진화를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탐구하는 도구가 될 수 있으며, 교회 교육에서도 신앙과 과학을 연결하는 매개로 쓰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김아람 교수(한동대 생명과학·AI 융합학부 교수)는 바이오 빅데이터와 AI 연구가 유전자 기원 검증의 새로운 길을 열어, 진화론과 창조론이 과학으로 경쟁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화진 교수(경희대 의대 교수)는 AI와 빅데이터가 생명의 복잡성과 비임의적 질서를 드러내어 진화론의 한계를 보여주어, 과학적 발견을 성경 진리 안에서 해석하는 태도가 요청된다고 합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석종준 선교사가 양승훈 총장과 대담했습니다. 양 총장은 다양한 창조 담론이 공존하지만, 본질은 “창조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창조론 논쟁의 핵심은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성경의 절대적 진리성과 창조 신앙을 붙드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창조 담론은 단순한 과학 논쟁이 아니라 존재론적 차원에서 인간

과 세계의 근본을 탐구하는 신학적 대화이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창조론 전문 학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신앙과 창조 담론의 관계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섬김의 자리〉에는 실행위원인 윤태형 교수(동서대 교수)가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자 진리 탐구의 내적 동력으로서,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개인과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는 고백이 소개됩니다.

〈청년 시론과 일터〉의 오주영 자매(서울대 건축공학 석사과정)는 AI 구조설계 연구를 통해, 인간의 창의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증거라 강조하며, 기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지은 자매(덕성여자대 교직원)도 취업 실패와 불안 속에서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때에 길을 열어주셨음을 간증합니다. 문지명 형제(서울대 약학대학 졸업)는 의료봉사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공훈의 마음과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을 향한 부르심을 깨달아 약사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영화를 보다〉의 강진구 교수(고신대 성경학과 교수)는 〈추방: 허용되지 않은 지성〉이 지적설계론의 과학적 승리가 아니라 학문의 자유 보장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신앙적 관점도 진리 탐구의 정당한 대화 파트너가 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물음을 제기한다고 해석합니다. 〈미술을 보다〉의 서성록 교수(안동대 미술학과 명예교수)는 AI 시대에도 인간 창조성의 고유한 기준은 신체성에 기반한 실존적 경험이며, 인간의 창조는 몸으로 세계와 교감하는 성육신적 응답임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책을 보다〉에서 김남국 목사(한샘교회)는 〈기독교 철학 입문〉을 친절하게 도어베르트 철학을 안내하는 책으로 권합니다. 오석현 교수(Caroline대 경영학과 교수)는 『AI 시대, 인류에게 기회인가 위기인가』가 AI

의 가능성과 재앙적 위험을 균형 있게 소개하며, AI를 공공재로 활용하려는 저자들의 비전을 소개합니다. 정명현 형제(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석사과정)는 〈정치와 종교, 그 위험한 관계에 대하여〉가 교회는 권력의 특권을 추구하지 않고, 경청의 용기를 가진 공동체로서 공적 광장에서 시민교양과 공동선을 회복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교회로〉에서 김남언 목사(서울중앙교회 부목사)는 ‘현대문화 알아보기’ 과정을 통해 성도들이 현대 문화 사조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분별하며 신앙과 삶의 관계를 깊이 성찰했다고 전합니다. 안순호 형제와 박혜련 성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예술과 문화 속 세계관을 성경적 진리와 비교·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고, 성도들과 함께 배우고 나누는 기쁨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온전한 지성〉에서 최용준 교수(한동대 AI 융합학부 교수)는 지난 호에 이어 보델슈빙 부자의 성경적 세계관이 어떻게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 돌봄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탐구합니다. 이어서 2026년 기독교학문 연구회 춘계학술대회 ‘AI 시대 창조론 토크보기’를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는 창조론 논의에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해 줄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글을 써주시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가 건강한 창조론을 갖추어 가는 논의에 귀한 자료집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변함 없이 늘 함께 애써 주신 편집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FAITH & LIFE



✍ 글쓴이 신국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자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장이다. 총신대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M.Div., Th.M)했고,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소(ICS)와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문화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총신대 명예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로도 섬기고 있다.

# 두 개의 시계, 하나의 진리 : 물리학자가 바라본 창조의 대서사시

제원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나노 물리학)

오늘날 대한민국 교계와 학술계에서 창조론을 둘러싼 논쟁은 팽팽하게 대립하는 두 개의 진선을 형성하고 있다. 한쪽에는 성경의 문자적 권위를 수호하기 위해 현대 과학이 이룩한 우주 연대 138억 년을 부정하는 ‘젊은 지구론’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과학적 사실을 수용하기 위해 창세기의 역사성을 포기하고 생명의 진화 메커니즘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유신진화론’이 있다. 전자는 이성을 외면한 폐쇄성으로, 후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이라는 인간의 특별함을 유물론과 타협했다는 점에서 각각 학문적·신학적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성경의 영감성과 절대적 권위를 신뢰하는 복음주의적 신앙고백 위에서 있는 물리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대립은 시간의 본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충돌이다.

필자는 평생 동안 극미세 세계의 물리 현상을 탐구하는 나노 물리학 분야의 연구에 매진해 왔다. 나노 스케일의 초미세 질서와 물리적 거동을 정밀하게 추적하는 과정은, 역설적이게도 창조주의 정교한 신성과 설계를 매일 같이 확인하는 경이로운 여정이었다. 성경(계시)과 과학(자연)은 창조주를 보여주는 두 개의 창문이며, 자연은 창조주의 신성이 투영된 거대한 그림

자이다. 그림자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이성(과학)과 원형을 바라보는 믿음(신학)은 결코 모순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의 절대적 권위와 현대 천체물리학의 압도적인 관측 증거들을 동시에 정직하게 품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은 현대 물리학의 가장 위대한 성취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우주의 시간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일정하게 흘러왔다는 뉴턴식의 ‘절대적 시간’ 관념에 갇혀 있다. 이 프레임 안에서는 창세기의 ‘여섯 날’과 빅뱅 이론의 ‘138억 년’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숫자가 된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관찰자의 운동 상태와 시스템의 에너지 밀도(중력)에 따라 시계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즉, 현대 천체물리학이 말하는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는 선언은, 오늘날 비교적 정지해 있고 차갑게 식은 ‘현재 지구의 관찰자 시계’로 과거를 역산했을 때의 시간이다. 반면, 창세기 1장의 기록은 시공간이 창조되고 초고온·고밀도의 에너지가 상상을 초과하는 속도로 가속 팽창하던 ‘초기 우주의 시점(창조주의 관

점 시계)’에서 현재를 바라본 기록이다. 뜨거운 기체가 급격히 팽창하면 온도가 낮아지고, 이에 따라 시간의 흐름을 규정하는 물리적 빈도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길어진다.

물리적 계산에 따르면, 우주 초기의 쿼크(첫 물질)가 생성되던 시점의 우주 온도는 오늘날 우주 배경 복사로 측정되는 온도보다 약 3조 배 높았다. 이는 초기 우주의 시계가 현재 우리의 시계보다 3조 배 느리게 흘렀음을 의미한다. 초기 우주 관점에서의 1초는 오늘날 지구의 시계로 환산하면 약 9만 년이라는 거대한 시간 간격에 해당한다. 이 우주 팽창 속도와 온도 감쇄 비율을 대입하여 로그 함수적으로 감쇠하는 시간의 길이를 연속적으로 더해 보면 놀라운 결과가 도출된다. 물질이 생성되고 별과 은하가 형성되어 오늘날 인류에 이르는 우주적 대서사시는, 초기 우주의 중심 시계로 정확히 ‘여섯 날’이 걸리며, 이를 오늘날 지구의 시계로 환산하면 ‘138억 년’이 된다. 즉, 창세기의 6일도 물리적 사실이고, 과학의 138억 년도 물리적 사실이다. 두 시계는 서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시차를 두고 완벽하게 공존하며 성경의 절대적 진리성을 가장 강력하게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우주 연대를 수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무신론적 진화주의로의 타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진화론자들은 무한에 가까운 긴 시간만 주어지면 무작위적인 확률을 통해 흠에서 생명이 돌아나고 인간의 지성이 스스로 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외삽의 오류이다. 단 500글자의 애국가 단락을 138억 년간 무작위적 고속 타자로도 우연히 만들어낼 확률은 없다. 하물며 생명체 속에 담긴 고차원의 유전 정보와 정밀한 메커니즘은 진화주의의 맹목적 믿음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다. 더구

나 창조 세계의 정점인 인간에게는 시공간과 물질을 초월하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젊은 지구론’의 해석학적 경직성과 ‘유신진화론’의 유물론적 타협을 모두 넘어서야 한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당대의 이교도 학문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을 도망치듯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위에 기독교적 진리의 체계를 웅장하게 쌓아 올렸듯이, 한국 교회의 목회자와 신학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역시 현대 과학의 빛나는 성과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과학을 적으로 규정하는 폐쇄성은 지성인들과 다음 세대를 교회 밖으로 내모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성경과 과학이 모순같이 보이는 건 아마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적던가 과학에 대한 이해가 적던가 둘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한다.

아인슈타인의 시공간 렌즈로 재조명한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더 넓고 깊은 창조론의 지평을 열어준다. 과학의 이성엔 진리를 향해 끈질기게 나아가지만, 그 종착지에서 마주하는 것은 거대한 모순이 아니라 창조주가 심어 놓은 위대하고 분명한 신비와 조화일 것이다.

FAITH & LIFE



✍ 글쓴이 제원호

서울대학교에서 물리학 학사, 석사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Ph.D)를 받았으며, 하버드대학교 박사후연구원을 지냈다. 1992년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2012년 미국물리학회 석학회원으로 선정되었으며 2006년에는 제51회 대한민국학술원상(이학부문)을 수상하였다. 2011년 미국 고든콘웰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과학의 신학적 이해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가져왔다.

# ‘창조냐 진화냐’에 대한 내 생각은 이렇게 진화했다

이윤석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 원장)

## 20대 청년 시절에 새겨진 ‘창조’라는 관점

중고등학교 시절 나의 장래 희망은 물리학자였다. 그러나 대학 2학년 때, 물질세계보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흥미가 더 큰 것을 발견하고 경영학파로 전과했다. 대학 입학 후 신앙을 갖게 된 나는 성경의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천지창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이 대학 시절 큰 과제였다.

학부 과정에서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을 학습한 기본적인 과학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진화’라는 과정 자체를 하나님이 창조의 방법으로 사용하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었다. 나중에 보니 그것이 바로 ‘유신진화론’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프란시스 쉼퍼의 <창세기의 시공간성>이라는 책을 읽던 중,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그 6일 동안에 이토록 엄청난 세계를 말 그대로 ‘창조’하셨다는 믿음이 들어왔고, 그 이후로 나는 진화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가 이 세상이 있게 만든 유일한 원인이라 메커니즘이라고 여기고 있다. 어떻게 보면 창조과학회의 ‘젊은지구론’ 입장에 있었던 것이다.

## 신학 공부를 하면서 확대된 세상의 기원에 대한 시각

나는 신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기원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다. 신학교 입학 후 과학과 신학의 관계, 세상의 기원에 대한 관점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신학을 전공한 것이 유익했던 점은 바로 창세기 1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정통적인 관점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창세기 1장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크게 두 가지 서로 타협하기 어려운 관점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거대한 교단이 분열될 정도로 깊고 넓었다. 지나서 보니 나는 종교개혁 때 다시 찾은 칼뱅의 개혁과 전통, 성경의 유기적 영감을 믿고 성경의 자증성(Self-attestation)을 믿고 따르는 그런 교단에 속해 있었다.

내가 속한 교단의 신학 노선은 내 생각과 부조화가 없었고 나는 그 경계 안에서 창세기 1장을 해석하는 노선에 친숙해졌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 대한 해석을 신학적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탐구하는 것은 범주가 다른 연구다.

신학적으로는 창세기 1~3장에 묘사된 창조 사건에 대해 미국의 OPC 교단이나 PCA 교단처럼 ‘일반적인 길이의 날(24시간) 관점’, ‘특정되지 않는 길이의 날 관점’, ‘날-시대 관점’, ‘틀 관점’, ‘유비적 관점’ 등 여러 관점이 허용될 수 있다.

## 세상의 기원과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관점들

이에 상응하여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관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단순화하여 구분하면 ‘젊은지구론’, ‘오래된지구론’, ‘유신진화론’, ‘지적설계론’ 정도로 나눌 수 있다.

나는 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오래된 지구론'의 입장이다. 왜냐하면 유신진화론도 '오래된 지구'를 전제하지만 '진화' 개념에는 찬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신진화론자들은 우주의 진화를 이야기하고, 무기물이 유기물로 저절로 바뀌는 화학 진화가 일어났다고 하며, 유기물이 원시 세포로 발전했다는 생물 진화를 이야기한다. 나는 이 세 가지 중 우주 진화는 변화의 개념으로 이해해 줄 수 있지만, 화학 진화와 생물 진화는 과학적으로 발생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즉, 허구다.

반대로 나는 '젊은 지구론'은 과학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오래된 지구론은 과학에 부합하므로 수용할 수 있고, 젊은 지구론은 현대 과학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로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가능한 기원 설명으로 수용할 수 있다.

**독특한 성격의 지적설계론**

지적설계론은 젊은 지구론, 오래된 지구론, 유신진화론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 세 가지는 세상과 생물의 존재 메커니즘을 설명하려 한다. 그런데 지적설계론은 세상의 각종 존재들이 우연히 그저 존재하게 된 것이냐, 아니면 지적 능력을 가진 설계자의 설계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이냐를 규명하는 방법이다.

이 지적설계론은 우주와 지구가 오래 되었는지 아니면 젊은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다만 세상과 생물들이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지적 존재의 설계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조한다.

나는 이러한 지적설계론의 관점도 수용한다. 지적설계론은 이 세상과 생물들이 진화가 아니라 창조로만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논리 체계다.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한 겸손하면서도**

**진지한 탐구 노력 필요**

나는 양승훈 박사가 시작한 '창조론오픈포럼'에 공동대표 중 한 명으로 참여하고 있다. '창조론오픈포럼'은 다양한 창조론을 논의의 장으로 가져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열심히 탐구해야 한다. 이는 창세기 1장 28절에 주어진 문화명령의 일환이기도 하다. 여러 학문 분야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연구한다. 인류는 그동안 수많은 지식을 축적해 왔으나, 여전히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도 많다. 특히, 오래전 과거에 있었던 세상의 첫 시작, 생물의 첫 시작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또한 신학과 과학 간에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 둘을 일치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각각 설명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모두 다양한 관점을 잠정적인 '작업 가설'로 여기고 겸손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세상과 생물의 기원을 연구하는 모든 연구자는 열린 마음으로 이 일을 해 나가길 바란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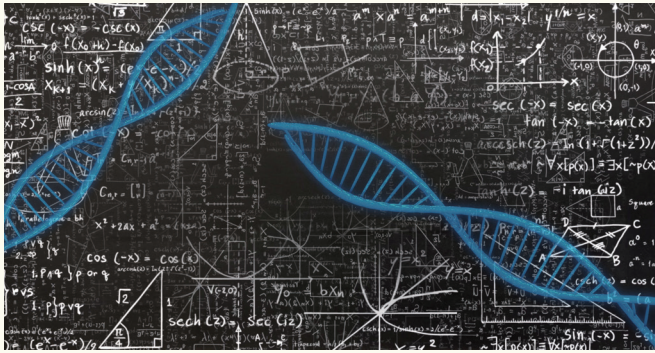


**글쓴이 이윤석**

현재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 원장이며 창조론오픈포럼의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KAIST에서 경영학 전공으로 학사(BS), 석사(MS), 박사(Ph.D) 학위를, 총신대학교에서 목회신학대학원(MDiv), 조직신학 전공 석사(ThM), 박사(Ph.D) 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세상을 고치는 기독교 세계관>, <탁월한 시장 훌륭한 시의원>, <4차 산업혁명과 그리스도인의 삶>, <성화란 무엇인가> 등이 있다.

# 2000년대 중후반 KAIST RACS 회원의 눈으로 본 지적설계

홍성욱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성욱아, 이제 조금만 지나면 창조주의 존재 자체는 아무도 거부할 수 없게 될 거야. 단지 그 창조주가 하나님인지, 알라인지, 다른 종교의 신인지를 놓고 싸우게 되겠지!”

2004년 어느 저녁, 동아리 모임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던 길, 당시 동아리 회장님이 필자에게 해 준 말이다. 동아리 이름은 RACS. 원래 KAIST의 젊은지구론 창조과학 동아리였지만, 1990년대 말부터 지적설계에 관심을 넓혀, 필자가 가입한 2004년에는 지적설계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모임이 되어 있었다.

멤버들은 바이오시스템 전공(유전자·정보 분석)과 이론물리학 전공(우주의 기원·변화 연구, 필자 포함)으로 나뉘었다. 배경은 달랐지만, 신실한 신앙인이자 제대로 된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공통의 갈망이 있었다. 단순한 직장선교가 아니라 과학기술 자체에도 기여할 길 원했고, 하나님 없이 모든 기원을 설명하려는 분위기에 의분을 느꼈다. 동시에, 널리 알려진 창조과학의 ‘증거’ 중 일부가 틀렸거나 검증이 부족하다는 점, 문자

적 성경 해석에서 연구를 출발하는 방식이 우리 전공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 부담스러웠다. 우리는 자신의 전공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었다.

그 대안이 지적설계였다. 지적설계 운동은 1990년대 초 미국에서 다윈주의 진화론이 생물에 대한 유일한 과학적 해법인지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했다. 법관 출신 필립 존슨은 다윈주의가 자연주의 세계관을 전제한 이론이라 비판했고, 생화학자 마이클 베히는 <다윈의 블랙박스>에서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을 제시했다. 박테리아 편모, 혈액 응고처럼 여러 하위 구조로 이뤄진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시스템에서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기능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점진적 진화로는 설명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수학자 윌리엄 템스키는 이를 ‘특정 복잡성’ 개념으로 정식화했다. 어떤 사건이 뚜렷한 패턴을 지니면서도, 우연히 일어날 확률이 우리 우주 전체를 기준으로  $10^{150}$ 보다 낮다면 설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지적설계는 과학적 언어와 방법론에 집중하고, 과학이

다루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다. 지적설계는 문자적 성경 해석에서 출발하는 전통적 창조과학이나 진화론을 수용한 채 신학적 간극을 메우려는 유신론적 진화론과는 다르다. 어떤 생물 시스템에 설계가 개입했는지만 관심을 두고, 그 설계가 단번에 이루어졌는지, 점진적 과정을 거쳤는지는 열어 둔다. 이 덕분에 양쪽을 포용할 수 있고, 실제 과학 연구와 비그리스도인 동료들과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우리에게 매력적이었다.

2000년대 중후반, 우리는 두꺼운 원서를 번역하여 토의하며 지적설계의 두 쟁점을 붙들고 있었다. 첫째, 베히가 말한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도 점진적 진화로 형성될 수 있다는 반대 논변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둘째, 다중우주를 가정해 우연의 기준값을 사실상 0으로 만들고, 설계를 감지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였다. 우리는 점진적 진화로는 설명 불가능한 시스템을 찾아 증명하고, 다중우주가 있더라도 우연의 기준값을 본질적으로 바꾸지 못함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당시 RACS는 이 과제를 완전히 풀지 못했다.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 진화로 불가능함을 보이려면 모든 진화 경로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다. 다중우주 이론도 관측 범위 너머에 있기에, 증명도 반증도 어려웠다. 다만 시간이 한참 지난 오늘날, 인공지능의 발달로 이러한 복잡성을 컴퓨터로 모사해 볼 수 있게 되었고, 다중우주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던 우주론의 핵심 문제들도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더 큰 문제는 지적설계가 너무 이른 시점에 정치적 논쟁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는 점이다. 2004년 미국 일부 지역에서 교과서에 진화론과 함께 지적설계를 대안으로 포함하려 했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를 지지했다. 이미 이라크 전쟁 등으로 우파 근본주의의 상징처

럼 여겨지던 인물이 지적설계를 옹호하면서, 학계 내부 논쟁은 곧바로 정치적·사회적 전선으로 번졌다. 그 결과 지적설계는 기존 창조과학과 비슷한 수준으로 과학계에서 밀려났다.

지금 지적설계는 방법론적으로 더 발전할 기회를 상당 부분 잃었고, 이를 강하게 옹호하는 이도 많지 않다. 비기독교 진영은 물론, 기존 창조과학과 유신론적 진화론 모두에게서 공통의 비판 대상으로만 소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지적설계가 추구했던 목표, 곧 비그리스도인도 참여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려는 시도는 여전히 의미 있는 목표라고 믿는다. 당시 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이 이제 소장 연구자나 중견 연구자로 성장했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지적설계의 문제의식을 잇는 실제 연구를 이어 갈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때도 느꼈지만, 설령 정상적인 연구 끝에 설계라는 결론에 이른다 해도 누군가는 반발하고, 누군가는 여전히 신을 부정하거나 다른 종교를 내세울 것이다. 지적설계를 여전히 옹호하는 필자는 그 이후는 더 이상 과학자의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거기야말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장이 했던 그 선포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어쩌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가 우리가 과학자로서 붙들 수 있는 최선의 목표라는 믿음만은 남아 있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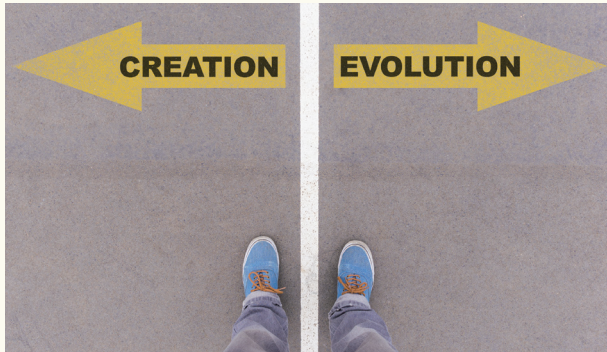


#### 글쓴이 홍성욱

한국천문연구원 이론천문센터 책임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이다. 카이스트 물리학과에서 학부와 석사과정을 졸업했고, 우주론 전공으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서울시립대학교 연구교수(2018~2020), 고등과학원 QUC 연구원(2013~2016), 충남대학교 박사후연구원(2011~2013)을 지냈다. 현재 대덕한빛교회 안수집사이며, 카이스트 기독교세계관 동아리 RACS 간사로도 섬기고 있다.

# 진화론은 정말 창조 신앙의 적(敵)일까? 유신진화론이 던지는 새로운 질문

정대경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수, 종교와 과학)



1859년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세상에 내놓았을 때, 과학계조차 그 낯선 패러다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다. 오늘날 생명과학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진화론은 주류 과학의 확고한 기초가 되었지만, 한국 교회를 비롯한 신학계의 풍경은 19세기의 당혹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듯하다. 불과 1~2년 전 ‘유신진화론’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신학 전공 교수가 교단 신학교 강단에서 해임되었다가 교원 소청을 통해 복직되었다. 얼마 전에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가 ‘유신진화론’을 이단으로 규정하면서 신학계와 교계 안팎은 들썩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소란은 진화론을 무신론으로 여기는 오랜 두려움이 빚어낸 결과다.

그러나 과학의 성과를 신학의 언어로 담아내려는 ‘유신진화론’을 향한 매서운 비판들을 찬찬히 뜯어보면, 그 바탕에는 짙은 오해가 깔려 있다. 흔히들 ‘유신진화론’이 기적을 부정하는 자연주의에 굴복했다거나 하나님을 세상 밖으로 밀어낸 차가운 이신론이라

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 진영의 학자들이 십수 년간 치열하게 전개해 온 신학적 성찰의 깊이를 마주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sup>1)</sup> 이들은 도리어 현대 과학의 지평 위에서 기독교의 창조 신앙을 더욱 풍성하고 역동적으로 변호해 내고 있기 때문이다.

## 과학과 신학, 두 권의 책이 가리키는 하나의 진리

‘유신진화론’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138억 년이라는 장구한 우주의 시간, 유전변이와 자연선택, 그리고 모든 현생 종이 공통 조상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현대 과학의 핵심 데이터들을 겸허하게 수용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신앙을 버리고 과학주의에 투항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들의 밑바탕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책(과학)’과 ‘계시의 책(성서)’이 결코 서로 모순될 수 없다는 진리정합설적 확신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 다시 말해, 자연과학을 통해 드러나는 실재에 대한 진리에 가까운 지식과(과학적 지식은 반증 가능하지만 그 지식은 축적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성서를 통해 드

러나는 진리에 가까운 지식(성서는 항상 해석을 필연적으로 요청함으로써 그 지식과 이해가 창출되기 때문에)은 정합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연과학이 다루는 자연과 세계의 창조주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며 성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기록하신 당신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바 유신진화론자들은 자연의 합법칙성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세계 내에서 당신의 창조 사역을 이뤄가실 때 그 합법칙성을 위배하고 행위하신다고 보지 않는다. 도리어 그분은 우주와 생명의 진화라는 장구한 자연 과정 ‘안에서’, 그 과정을 ‘통해’, 그리고 피조물과 ‘함께’ 당신의 뜻을 아름답게 실현해 가신다고 고백한다.

**창조 기사는 과학 교과서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이다**

이러한 고백은 성서의 창조 이야기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한다. 물론, 성서 안에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만 하는 층위와 사건이 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러하다. 그러나 창조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명제,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포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의 방법으로 창조하신다”라는 보조 가설 내 구체적인 방법은 자연과학과 대화하며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

성서 안에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시편과 잠언과 같은 시가서와 지혜서, 예언서에 하나님 창조에 대한 기록이 허다하다. 그리고 각 기록은 그 당시 기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하나님께서 상황에 맞게 주신 말씀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1장 10절을 기록하면서 시편 102편 25절을 인용하는데, 두 본문 모두 하나님께서 하늘을 손으로 지으셨다고 기록한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한 창조와 모순되는 기록이다. 그러나 시편과 히브리서 기자들에게 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sup>2)</sup> 그들에게 있어 창조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아니라 우리가 만난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계시적 경험과 부활 사건 가운데 알게 된 우리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고백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자연과학과 기독교 신앙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구성하는 ‘유신진화론’은 창조 신앙의 위기나 후퇴가 아니다. 그것은 자연이라는 장엄한 무대 위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피조물과 함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를 찬양하도록 이끄는 이 시대의 소중한 신학적 자산이다. ‘유신진화론’이라는 이름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다른 용어를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이 자연과학과 끊임없이 대화해야 한다는 ‘유신진화론’의 정신만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는 존경받는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도 이야기했던 바이기도 하다.<sup>3)</sup> **FAITH & LIFE**



**글쓴이 정대경**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수이자 연세대학교 교목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M.Div)과 버클리 연합신학대학원(Ph.D)에서 ‘종교와 과학’을 공부했다. 과학과 신학의 대화를 추구하는 ‘과학과 신학의 대화’ 연구소장을 맡고 있으며, 저서와 논문으로 <신학과 과학의 만남>(공저, 동연), <창조론과 창조신학>(공저, 동연), “Are Religious Machines Possible?”(Zygon: Journal of Religion and Science) 등이 있다.

1) Wildman, Wesley. “The Divine Action Project, 1988–2003.” *Theology and Science* 2, no. 1, 2004. 31–75.  
 2) 이상목. “신약의 창조 이해.” 손호현 편집, 『창조론과 창조신학』, 서울: 동연, 2026. 35–62.  
 3) Augustine. *The Literal Meaning of Genesis*. Trans. John Hammond Taylor, S. J. New York: Newman Press, 1982. 42–43.

# 창조의 섭리 안에 담긴 진화

우종학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과학과신학의대화' 대표)

예수를 그리스도와 창조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창세기 1, 2장을 읽으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배운다. 그러나 성서는 하나님이 만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과학적 설명을 주지 않는다. 누가, 왜 만물을 창조했는지는 신앙의 영역에서 다루지만, 지구의 연대나 생물의 진화는 과학의 영역이다. 신앙과 과학의 범주를 구분하지 못하는 과학주의자들은 과학이 무신론을 증명한다고 주장하고, 반대편 극단에서 창조과학자들은 창세기 1장에 의해 빅뱅우주론, 지질학, 생물진화론이 틀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개혁자 칼뱅은 성경이 일반인의 눈높이 맞춰 기록되었다고 말한다. 평평한 지구, 해와 달과 별들이 담긴 궁창, 그 위에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 지구 중심의 좁은 창조계를 상식으로 알았던 고대 근동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창세기가 쓰였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우주 팽창이나 지구의 공전, 지구의 연대나 생물의 진화가 담겨있지 않다. 칼뱅은 천문학을 배우려면 성경 이외에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라고 권한다. 이것이 칼뱅이 말하는 '적응론'(Accommodation)의 핵심이다.

현대 과학은 어떤 철학적 목적으로 창조세계를 탐구하지 않는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인과관계를 찾아내고 자연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우주의 형성 과정과 지구의 나이를 알아냈으며 생물의 진화 과정을 밝혀왔다. 성서가 기록된 고대의 근동인들은 당대의 상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만물을 즉각적으로 완성된

형태로 창조'(creatio de novo)라는 개념을 가졌지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긴 연대를 거쳐 자연법칙을 통한 '만물 하나하나의 연속적 창조'(creatio continua)라는 동적 개념을 갖고 있다.

여전히 고대 근동 세계관에 갇힌 사람들도 많다. 6일 창조를 과학적 설명으로 오독하여 '젊은지구론'을 주장하거나, 지구의 태고성은 인정하지만 생물 진화는 부정하는 '오랜지구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창세기 1장의 하루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지구의 하루를 의미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그 의미를 바탕으로 창세기 1장의 내용을 과학적 설명으로 받아들이면 문자주의에 빠진다. 성경에서 과학의 답을 찾지 말라는 칼뱅의 경고를 다시 떠올려야 한다.

과학자들은 시간적 과정을 거쳐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때 진화라고 표현한다. 우주, 지구, 생물의 진화는 신을 배제하거나 창조의 목적이나 계획을 제거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에 대한 답변이다. 그 답변은 '누가', '왜'라는 신학적 질문과는 아예 범주가 다르다.

그렇다면 과학이 다루는 진화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 창조의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과학의 범주인 우주와 생명의 진화 과정을, 신앙의 범주에서 하나님의 섭리도 이해하는 관점이 바로 '유신진화'(theistic evolution)다. 진화가 신 없이 이루어진 것

이 아니라, 창조주의 창조 방법으로 진화를 이해한다는 뜻이다. 생물 진화를 넘어 모든 과학을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일 때 같은 관점이 적용된다. 과학은 사계절의 변화를 태양과 행성들의 중력으로 설명한다. 이런 과학의 답변은 고대 근동의 상식과 어긋나지만 우리는 중력을 반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중력을 사용한다고 해서 '유신 중력'이라는 부르지도 않는다. 하늘의 움직임을 중력으로 밝혔으니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신론이 성행하지도 않는다. 반면, 진화의 경우는 다르다. 과학으로 진화가 입증되었으니 기독교는 퇴출되어야 한다는 무신론의 주장이 만만치 않으며, 진화가 무신론과 동치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은 '무신진화'(atheistic evolution) 대신 '유신진화'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표현은 '진화-창조' 논쟁의 역사적 배경에서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기독교 내부에서 논할 때는 '진화적 창조'라는 표현이 낫다. 창조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의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이 진화를 사용하셨다고 보는 '진화적 창조', 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직접적 창조' 등 다양한 수식어를 붙일 수 있다.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밝히는 도구라고 보는 나와 같은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자연 세계에 부여하신 자연법칙, 인과관계, 우발성 등을 사용하고 섭리하신다고 믿는다. 이 관점이 바로 '진화적 창조'이다. '진화적 창조'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원죄론이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진화적 창조'를 거부한다면,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어 단세포부터 약 열 달을 거쳐 태어나는 발생 과학은 수용해도 괜찮을까? 이 경우 원죄는 어떻게 설명할까? 부모의 DNA를 통해 생물학적으로 유전된다고 보는가? 수정과 발생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믿는다면, 진화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

다고 믿는 일은 왜 허락되지 않는가? 발생을 통한 인간의 창조가 원죄론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진화적 창조'를 통한 아담의 창조는 어떻게 원죄론을 부정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진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무능한 분일까, 아니면 신학적 이해가 부족한 우리가 무능한 것일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죄의 상태를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이 믿음에 과학적 설명은 불가능하다. 과학적 설명이 불가능한 원죄론 때문에 과학적 설명인 진화를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근원적 한계를 갖는다. 신학적 어려움 때문에 과학을 반대하는 일은 어리석다.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다. 하나님을 자연법칙과 진화를 사용할 수 없는 무능한 신으로 제한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부르며 경배하던 출애굽 히브리인들의 오류를 답습하는 셈이다. AI 시대에 과학에 대한 접근성은 훨씬 높아지고 있다. 문자주의에 빠진 교회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과학을 배우면서 창조 신앙을 거부하게 된다. 고대 근동인들이 파악할 수준으로 창조주를 제한하면, 어떻게 과학을 품고 넘어서는 창조 신앙이 가능할까? 과학적 발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신학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제대로 이해해 왔는지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창조에 대한 이해를 완성해 가야 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우종학**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이자 '과학과 신학의 대화' 대표이다. 예일대학교에서 천체물리학 전공으로 박사학위(Ph.D)를 받았고 주요 연구 분야는 블랙홀과 은하 진화이다. 현대 과학을 기독교 창조 신앙으로 품는 사역을 위해 2016년 '과학과 신학의 대화'를 설립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AI 시대, 참된 인간됨을 드러내는 교회를 소망하며

차수진 (한양대학교 류마티즘 연구원 연구교수)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장로교 고신 교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청년 시절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 고등부·청년부 목사님들의 헌신적인 가르침으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교리문답 등의 교리를 배우면서 창세기, 로마서 등 다양한 성경 공부를 했고, 내 삶에 신앙을 알게 해 준 공동체가 너무 감사해서, 나처럼 청년들도 그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리더와 조교로 여러 해 동안 청년부를 섬겼다. 대학교에서는 SFC(학생신앙운동) 일원으로, 학과 기도 모임 리더로 활동했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했다. 결혼 후에는 일터에서의 선교적 삶을 나의 소명으로 여기며, 그리스도인답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기쁨으로 일하며 살기를 애쓰고 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을 생의 목적으로 여기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다.

대학원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암, 자가면역질환을 비롯한 다양한 유전체(genome) 연구를 하고 있다. 여러 연구 중 간단히 한 가지만 소개하자면, 유전 변이 데이터를 GWAS(genome-wide association study)와 같은 방법론으로 연구한다. 이는 정상인 집단과 암 환자 같은 특정 형질 집단의 유전 변이 빈도(frequency)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형질과 연관성 있는(associated) 변이를 찾는 기법으로, 현대 유전학의 핵심 방법론 중 하나이다. 진화론은 긴 시간에 걸친 변이와 자연선택을 통해 종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이론인데, GWAS는 한 시점에서 집단 간 변이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전 변이를 다룬다는 면에서 진화론을 토대로 한 과학 연구인 유전학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학은 측정 가능한 데이터에 기반한 학문이기 때문에 신앙과 창조에 관한 내용을 다루지 않고, 다룰 수도 없다. 따라서 과학이나 과학 연구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의 신앙이나 창조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나의 신앙과 창조론에 영향을 준 것은 과학이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과 성경 말씀,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었다. 오히려 대학생 시절, 진화론이 신앙에 위협이 되는 잘못된 이론이라는 견해를 접하면서 “의도가 불순한 과학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혼란스러워했던 기억이 있다. 당시 선한 열심으로(?) 진화론 관련 강의를 수강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진화론과 신앙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학부 때 들을 수 있었던 진화론 강의를 놓친 것이 아쉬웠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생을 바쳐 연구하는 일반적인 과학자들의 삶을 보면서 교회 안에 오해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진화적 창조론'(유신론적 진화론)을 받아들인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인간을 포함한 생명들이 진화

를 통해 현재와 같은 형태가 되었다고 이해한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나의 신앙의 결과이며, 진화에 대한 이해는 나의 과학적 사고의 결과이다. 창조론은 창조에 대한 견해이기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같더라도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견해차에 따라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사람마다 과학에 대한 이해도와 창세기 등과 같은 성경 해석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창조론이 있을 수 있으나, 과학과 성경 해석은 불완전한 인간 활동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모든 창조론은 불완전하다고 생각한다. 성경의 절대적 진리성은 특정 창조론으로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권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고, 그 권위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믿는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창조론의 입장에 있든, 신중함과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하며,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벧전 3:15)는 말씀을 기억하고 싶다.

AI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인간의 노동력이나 능력을 대체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듯하다. 인간의 인간 됨이 어디에서 오는지 생각해 본다. 능력과 성과 위주의 현대 사회에서 AI가 더 나은 능력과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역설적으로 인간의 고유한 역할, 즉 영혼을 가진 인간이 무엇으로 AI와 구별되는지를 오히려 고민하게 한다. 참되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 더욱 주목할 때가 아닐까 싶다. 참된 인간됨을 잃기 쉬운 AI 시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해 무엇이 인간다운지 알 수 없는 이들에게 참된 인간성을 따뜻하게 드러내는 노력이 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한다. 창조론에 대한 여러 갈등을 보았다. 진리를 위협하는

일에는 타협할 수 없지만, 과연 이 갈등이 그러한 일인지 잘 모르겠다. 한때 오해했던 나를 돌아보면, 한국 교회 안에서 다양한 창조론이 논의될 수 있는 요즘이 다행이라 생각한다.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토대가 생겼기 때문이다. 몇 년 전,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는데 교회의 가르침과 달라서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나에게 이야기했던 초등학교 아이가 생각한다. 이 현실이 속상하고 참담하다. 나는 교회 안에서 현대 과학과 조화를 이루는 창조론을 가르쳐, 다음 세대가 불필요한 혼란을 겪지 않게 할 책임이 우리 세대에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 생명과학은 매우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있어, 과학자조차 이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이 내용을 다룰 때에는, 평생을 바쳐 과학의 진보를 이룬 이들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학도 인간의 일이기에 한계가 있지만, 잘못된 결론은 전 세계 과학 커뮤니티 안에서 끊임없는 검증을 통해 바로잡혀 간다. 그 성실한 과정은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향점이라면, 생각과 배경이 다른 이들을 품으시고 허다한 허물을 덮으며 인내로 사랑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싶다. 그렇게 참된 인간 다음이 가득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 가면 참 좋겠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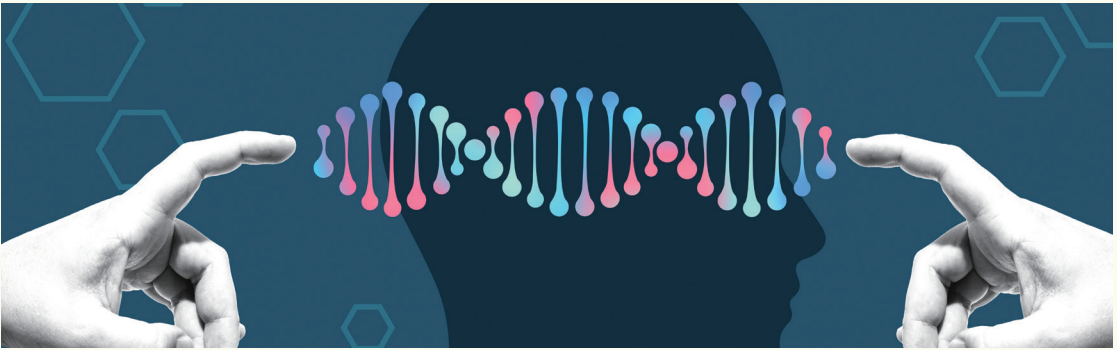


#### ✍ 글쓴이 차수진

한양대학교 류마티즘 연구원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유전공학/생명과학을 복수 전공했고, 서울대학교에서 중앙생물학 석사와 박사를 마쳤으며, 서울대학교 유전체의학연구소 포스트닥(Post-Doc),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삼성서울병원 포스트닥, University of Pennsylvania Research fellow를 거쳤다. 남편, 귀여운 쌍둥이 아들과 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는 서울서문교회 성도이다.

# AI시대 창조론적 유전자 기원 연구

김아람 (한동대학교 생명과학부 및 AI융합학부 교수)



필자는 인간 유전체의 기능을 연구하고, 희귀유전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차세대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생명과학자다. 필자는 연구자로서 관찰 또는 실험으로 확인 가능한 모든 과학적 사실을 수용한다. 돌연변이, 환경적응, 유전적 부동, 격리 등에 의한 계통내 다양화 등을 인정하며, 유전체 서열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 분석 방법론도 적극 활용한다.

동시에 필자는 창조론적 기원 연구를 수행하는 창조과학자이다. 이 말이 누군가에는 모순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창조론적 관점에서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 필자에게 충돌하지 않는다. 창조론적 연구를 수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가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더욱 깊이 느끼고 있다.

## 유전자, 생명 정보를 담은 기능적 정보 복합체의 기원

유전자는 단순한 DNA 서열이 아니다. 인핸서, 프로모터, 코딩 서열, 비번역 영역 등 다수의 기능 요소가 정교하게 협력하는 기능적 정보 복합체이다. 현존하는

가장 단순한 독립 생존 세균도 500여 개의 단백질 유전자를 가지며, 인간의 경우 20,000여 개에 달한다. 유전자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생명체의 기원도 설명할 수 없기에, 현대 과학은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다.

진화론의 근간이 되는 핵심 가정이 있다. 현존하는 모든 생명체는 언젠가 아주 단순한 형태의 원시 세포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가정이다. 진화론은 모든 생명체가 보편적 공통 조상으로부터 출발했고,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을 통해 새로운 유전 정보들이 점진적으로 축적하면서, 더 복잡한 새로운 계통을 출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창조론적 관점은 고도로 복잡한 생명체의 원형(종류)들이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보다 지적인 존재에 의해서 출현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생명체의 유전 정보들은 환경에 따라 변형되거나 분화될 수 있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 인류가 직접 관찰한 가장 오래된 진화연구가 보여주는 것

대장균 장기 진화 실험은 우리에게 다시 생각할 만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 실험은 12개의 대장균 계통이 에너지원(포도당)이 적은 환경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수만 세대를 관찰하였다. 흥미롭게도 약 3만 1천 세대 정도가 지났을 때 특정 대장균이 배양액에 함께 들어 있던 시트르산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기존 대장균들은 호기성 상태에서 외부의 시트르산을 활용하지 못했기에, 이러한 대서적 변화는 진화의 증거로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대장균은 시트르산 수송체 유전자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 다만 그 유전자를 산소가 있는 상황에서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런데 특정 시점에 호기성 환경에서 활성화되는 프로모터가 시트르산 수송체 유전자와 재배열되면서 대장균이 시트르산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즉, 돌연변이에 의해서 전혀 새로운 유전자가 '생성'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존재했던 유전 정보가 재사용되고 변형된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존 유전자의 변형은 수많은 집적 관찰 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디노보'(De novo) 유전자', 즉 무작위 서열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탄생되었다는 유전자들의 생성 전 과정은 직접 관찰한 사례가 없다. 개별 단계의 정황만 제시될 뿐이다. 더 근본적인 한계는, 이러한 디노보 유전자 이론은 이미 존재하는 전사·번역·복제 기계를 전제한다는 점이다. 변형을 가능케하는 유전 정보의 원형과 그것을 발현시키는 시스템 자체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에 대해 진화론은 RNA world 가설 등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할 뿐 확정된 경로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안적 해석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다.

1) '디노보(De novo) 유전자'는 부모에게 물려받지 않고, 아예 새로운 유전 정보를 담고 있지 않던 비부호화(Non-coding) DNA 영역에서 돌연변이를 통해 새로 탄생한 유전자를 말한다.


###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AI 연구가 제시하는 것

생명의 기원은 과거 사건으로, 화석, 지층, 유전체 서열 등은 모두 그 흔적이 담긴 증거들이다. 이 증거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해석이 필요한데, 그 해석을 위한 전제와 가정은 모두 검증된 사실일까? 여기서 우리는 기원 과학의 본질적 한계와 마주한다. 그러나 최근 생물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특정 초기 조건에서 기능 유전자의 자연적 출현 가능성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탐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바이오 빅데이터와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진화론과 창조론 중 어떤 모델이 실제 관찰되는 유전체 다양성과 복잡성을 더 잘 설명하는지, 어떤 모델의 가정들이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보다 심층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 결론 및 제언

창조론은 진리탐구를 목표로 한다. 관찰 가능한 과학적 사실들을 부정하지 않는다. 진화론과 창조론의 차이는 직접 관찰하거나 검증할 수 없는 과거 사건들에 대한 해석의 틀, 즉 핵심 가정에 있다. 창조론적 연구는 연구 대상이나 연구 방법론, 그리고 반증 가능성에서 진화론과 큰 차이가 없으며 라카토스(Lakatos)가 제시한 과학적 연구 프로그램의 정의에도 부합한다. 최초 생명체(종류)들 이후의 적응과 분화와 멸종은 창조론적 관점에서 탐구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에 많은 학자들이 동참하기를 바라며, 창조론과 진화론이 연구의 내용으로서 서로 경쟁하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FAITH & LIFE**



 글쓴이 김아람

한동대학교 생명과학부 및 AI융합학부 교수이다. 생화학 및 구조생물학 이학박사로, 미국 MIT 인공지능 및 브로드 연구소에서 인간 유전체 및 후성유전체 분야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 AI 시대 과학연구의 기독교 세계관적 접근

강윤희 (백석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2026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5월 30일 개최되었다. 학술대회의 주제는 ‘AI 시대 창조론 돌아보기’로서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 역사에 대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신선함을 주었다. 개인적으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라는 명제를 피상적으로 접근하는 컴퓨터과학의 연구자로서 발표자들의 주제에서 한계를 경험하였으며, AI 연구 주제에서 창조 섭리를 고찰하고자 한다.

## AI 대전환

AI(Artificial Intelligence)는 현대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우리 삶에 가깝게 다가오는 것을 다양한 경로로 확인할 수 있다. AI는 삶의 질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결해야 할 윤리적·사회적 과제를 남겨놓고 있다. 2024년 노벨 물리학상은 전통적인 물리학의 틀을 깨고, 현대 AI의 뼈대가 된 ‘인공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s)과 딥러닝(deep learning)의 기초 기술을 개

발한 두 선구자 존 홉필드(John J. Hopfield)와 제프리 힌턴(Geoffrey E. Hinton)에게 수여되었다. 이들 연구의 기여점은 인간의 뇌 신경망을 모방하여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고 기억하는 알고리즘을 구축한 것이다. 물리학 분야에서 연구 방법은 원자나 분자 같은 미시 세계의 무수한 입자들의 행동을 확률적으로 설명하는 통계물리학의 방법론에 의존하였다. 두 연구자의 AI 개념 설계연구는 수십억 개의 매개변수를 다루는 대규모 인공지능 탄생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과학의 경계가 무너지고 융합되는 과학 연구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 과학 연구를 통한 진화 섭리 이해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 한동대학교 생명과학부 김아람 교수가 발표한 논문, “AI 시대, 유전자 기원의 난제에 도전하다: 논쟁에서 검증으로”의 논찬을 통해, AI 시대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디지털 생물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창조 원리에 대한 생물학 분야의 적용과

관련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해당 발표는 AI 기반 디지털 생물학에 기반한 실험과 문헌분석을 통해 소진화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강건한 지적설계가 중요한 요소임을 다루었다.

논문의 논찬에 앞서 그리스도인 이공계 연구자로서 창조론과 진화론은 양립 가능한가라는 문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과학 연구는 방법론 측면에서 4번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졌다. 현재는 제4의 패러다임 시대로서 빅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것이다. 논문의 주제인 디지털 생물학과 AI를 통한 변이 예측은 제4의 패러다임의 연구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과학적 방법론을 통한 창조 역사에 대한 검증의 결과를 제시하며, 자연을 탐구하는 과학적 발견 역시 하나님의 창조 신비를 드러내는 과정으로 판단된다. 해당 연구는 과학적 방법론을 통한 창조 역사에 대한 검증의 결과를 제시하고, 자연을 탐구하는 과학적 발견 역시 하나님의 창조 신비를 드러내는 과정으로 이해하며, 진화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자연계에서 실현되는 과정이라는 해석을 위한 창조론 및 진화론의 조화 및 통합 모델로서 이해하려는 접근으로 시사점을 갖는다.

### 기독교 세계관과 AI 연구 접점

AI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피조물은 아니지만, 인간의 과학기술과 노동이 빚어낸 산물이다. 인간은 창조주의 대리인으로서 세계를 보존하고 가꿀 책임을 위임받은 존재이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는 못하지만, 주어진 재료와 지성을 활용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위임 명령인 “정복하라, 다스리라”(창 1:28)는 말씀의 이행을 위한 도구로서 AI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당한 AI의 활용은 기독교 세계관에서 수용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공지능 분야의 최신 기술로 등장한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생성형 사전학습 트랜스포머)나 알파폴드 같은 고도화된 AI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인간 엔지니어들이 정교하게 설계한 알고리즘과 아키텍처가 필수적이다. 이는 DNA라는 복잡한 코드가 아무런 지적 개입 없이 무작위적 돌연변이의 자연선택으로 만들어지기는 어렵다는 것과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 이 과정에서 AI는 수십억 번의 시도와 오류를 거치며 스스로 내부 가중치(Weight)를 조정한다. 이러한 가중치 조정은 창조와 진화의 조화 및 통합의 사례로서 관찰할 수 있다.

### 창조 섭리의 과학 연구 한계와 극복

창조론의 근거로서 논문 연구 결과에 대한 과학계의 수용을 위해서는 연구 결과에 대한 학계의 지속적인 비판과 토론에서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방법론적 자연주의’(Methodological Naturalism), ‘반증 가능성’(Falsifiability), 독자적인 예측 능력, 객관적이고 재현 가능한 경험적 증거, ‘동료 검토’(Peer Review)와 학계의 검증 등과 같은 과학적 방법론의 기준을 충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다양한 창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스도인 AI 연구자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교회학교에서 유초등부 학생들의 신앙교육에서 AI를 활용하여 창조 섭리와 접목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FAITH & LIFE



글쓴이 강윤희

백석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이다. 동국대학교 컴퓨터공학부 학부와 석사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키네기엘론대학교 방문 연구자(2003),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방문 과학자(2010~2011), ICT 플랫폼 학회장, 대한 전자공학회 호서지부장을 역임했다. 현재 천안 백석대학교 교회 안수집사이다.

# AI 및 빅데이터 시대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탐구하는 유전체학자

이화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유전체학)



##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삶과 단련의 여정

나는 오늘날 암 유전체와 후성유전체, 그리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단일세포 전사체와 공간 전사체라는 생명과학의 최첨단 전선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자 중 한 명이다. 하지만 나를 규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의 학문적 여정은 깊은 신앙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을 배우며 시작되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의 질서가 하나님의 설계임을 늘 일깨워주셨다. 특히 고등학교 및 대학교 시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은 나의 삶과 학문을 바라보는 렌즈를 이후에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때의 감격은 과학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동행하시고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과의 여정임을 깨닫게 했다. 나는 소속 연구실이 창조주의 흔적을 찾는 예배의 현장이며, 복잡한 데이터 사이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실이 되기를 간구한다.

## 확신: 성경, 오류 없는 하나님의 감동과 절대적 진리

나는 창세기 1장을 포함하여 성경 말씀의 온전함 및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음을 믿는다. 현대 사회에서 자연과학은 많은 이들에게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며 하나의 우상이 되었다. 그러나 자연과학적 지식은 그 한계가 분명하며 가변적이다.

우주의 기원에 대한 학설이 시대에 따라 큰 가변성을 보여주고 있듯이 진화론에 대한 학설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새로운 과학적 발견은 오히려 창조주의 깊은 지혜와 표현할 수 없는 오묘함을 계속하여 발견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나는 현재의 과학적 수준만으로 성경을 증명하려 애쓰는 것보다 성경 내 진리의 틀 안에서 과학적 발견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

## 연구의 현장: 생명 내 유전체 속 정교한 설계의 흔적을 추적하다

내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암 및 질환의 유전체 연구는 생명체가 얼마나 고도로 정교하게 설계되었는지

를 뚜렷하게 증거한다. 특히 '단일세포 전사체' 연구를 통해 세포 하나하나의 유전 정보를 읽어내고, '공간 전사체'를 통해 그 세포들이 조직 내에서 어떻게 질서 정연하게 배치되어 상호작용하는지를 관찰하다 보면, 이것이 무작위적인 방식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하기는 힘들다.

또한 내가 연구하는 방대한 유전체 데이터 역시 마찬가지이다. 유전체 내 질병의 기전을 발견하는 것은 단순한 지능의 영역이 아니다. 나는 데이터를 분석할 때마다 기도를 통해 지혜를 구한다. 인간의 지성을 넘어선 창조의 오묘함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통찰만이 그 복잡한 설계도 속에 숨겨진 창조주의 의도와 현실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하기 때문이다.

#### 진화론이라는 가설 vs 창조라는 실재: 종류대로의 창조

현대 진화론은 무작위적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라는 기제에 의존하지만, 이는 직접 증거가 불가능한 '기원 과학'이자 하나의 거대한 가설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의 유전체 연구 결과들은 돌연변이의 무작위성 가설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한다. 유전체 내에는 정보를 보호하고 정교하게 복구하는 지능적인 시스템이 다층적으로 존재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각 생물을 처음부터 그 '종류대로' 온전하게 창조하셨으며, 특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직접 창조하셨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방증이다. 무작위적 우연이 수십억 년의 세월을 거쳐 이토록 질서 있는 유전체 및 공간 전사체 지도를 그려냈다는 주장이 과학적 데이터 앞에서 설 자리가 있을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 SI와 빅데이터가 드러내는 창조의 심연과 진화론의 한계

인간 지성의 총화가 인간의 신경망을 모방한 AI에 모여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깊은 지혜로 인간의 지성을 SI보다 더 뛰어난

어난 시스템으로 만드셨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AI와 빅데이터의 발전은 오히려 창조의 심연을 더욱 깊게 드러내고 있다. '알파게놈'(Alphagenome) 같은 최신 모델로도 생명체의 복잡성을 온전히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은, 생명이 단순한 알고리즘의 결합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과거의 제한적인 분자유전학적 데이터와 달리, AI를 통한 전장유전체 분석은 생명체 내의 '비임의적 질서'와 고도의 정보 레이어를 드러내며 기존의 무작위적 돌연변이 가설을 무너뜨리고 있다. 데이터가 쌓일수록 우리가 마주할 것은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결코 우연일 수 없는 창조의 경이로움일 것으로 기대한다.

#### 결론 및 제언

지금의 AI 및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체의 복잡성과 완전성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마 13:9)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를 사모하는 자에게 더욱 온전히 보일 것이다. 현대 진화론 및 이를 일부 수용하는 '유신진화론'이 주장하는 “진화론은 과학적 방식을 기반으로 접근한, 사실에 기반한 학문이다”에 붙들리기보다는 아직은 진리에 다가가기에는 너무나 저차원적인 과학적 방법의 한계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가운데, 이토록 경이로운 우주와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겸손히 나아가고자 오늘도 기도한다.

FAITH & LIFE



✍️ 글쓴이 이화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에서 유전체 및 생물정보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단백질 분해 신약 개발 회사 (주)업테라의 공동창업자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동시에, 한국창조과학회에 속하여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전하고자 한다.

# AI 시대 창조론 톺아보기

## 양승훈 총장(에스와티니 기독의과대학교)

한국교회 복음주의 진영 안에는 '성경의 절대적 진리성'을 함께 고백하면서도, 특히 진화론, 우주론, 지질학에 대한 해석 방식의 입장에 따라 여러 유형의 창조 담론이 공존하고 있다. 즉, '젊은 지구론', '오래된 지구론', '유신 진화론', '지적설계론'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창조론'이라고 하면 곧바로 논쟁이나 갈등을 떠올리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다양한 창조 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묻는다. <신앙과 삶>(7+8월호)에서는 평생 창조론을 연구해 오신 한국교회의 대표적 시니어 전문가 양승훈 총장님의 인터뷰를 통해 그 해안과 지혜를 얻고자 한다.



인터뷰어 : 석종준(서울대 기독교생복클럽 지도목사)  
일시 : 2026년 5월 22일(금) 오후 3시  
장소 :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48길 16

**석종준** 총장님께서 한국교회 복음주의 진영 안의 창조 담론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젊은 지구론', '오래된 지구론', '유신 진화론', '지적설계론' 같은 다양한 입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양승훈** 저는 한국교회 복음주의 진영 안에 여러 창조 담론이 공존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보완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른바 '창조과학'은 아무래도 성경의 절대적 권위와 영감을 더 강조하고 있고, '오래된 지구론'은 성경의 영감과 더불어 과학적 사실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보지요. '유신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을 더 존중하고 강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적설계론'은 초월적 설계자를 가정한다는 점에서 유신론자라면 누구에게나 열

려 있는 이론이라 생각합니다. 각 이론은 강조하는 바가 다르지만 서로 배울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종준** 이 공존하는 여러 창조 담론이 공통으로 붙들고 있는 신앙고백은 무엇이고, 동시에 갈라지는 지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양승훈** 공통으로 붙들고 있는 핵심적인 신앙고백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의 진리성에 대한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담론들이 갈라지는 가장 핵심적인 지점은 성경의 진리성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론이 성경의 영감을 인정하지만 성경이 현대 과학의 사실들에까지 교과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르지요.

구체적으로 김영길 박사님은 이제만의 <창조과학 콘서트>라는 책을 추천하면서 “성경은 진정한 과학 교과서다!”라고 했는데, 이는 창조과학자들의 성경관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론들은 성경을 구원에 관한 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계시로 보지만, 과학이나 다른 학문적 영역에서는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의 문화적 측면이 반영되고 있음에 동시에 인정합니다.

**석종준** “성경은 진리이지만 과학책은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승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주전 1500년 전부터 주후 100까지, 약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1차 독자는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당시의 언어와 논리로 말하지 않았다면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현대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언급들이 많고, 어떤 개념들은 오늘날까지도 놀라운 영감을 주는 표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물리적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이해 정도는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진리이지만 과학책은 아니다”라는 표현은 성경의 영감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의 태도나 자세, 윤리에 대해서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주는 놀라운 혜안들이 많지만, 성경이 물리적 세계에 관한 현대과학적 표현을 담고 있다고 본다면 자칫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동설, 평면지구설 등은 성경의 문자적 표현에 대한 과도한 확신에 근거하고 있는 오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종준** 어떤 이들은 과학이 발전할수록 창조 신앙은 위축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과학이 창조의 신비를 더 깊이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양승훈** 저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연구의 태도, 자세, 윤리의 기초 위에서 과학의 발전은 하나님의 창조 신비를 더 깊이 드러낸다고 봅니다. 한 예로 1990년에 NASA에서 ‘허블 우주망원경’(Hubble Space Telescope)을 쏘아 올리고 그것이 촬영한 영상이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허블 이전의 우주에 대한 이해로부터 더 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NASA에서 쏘아 올린 ‘제임스웹 우주망원경’(James Webb Space Telescope)이 촬영한 영상들이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또 한 번의 우주에 대한 이해의 도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 천문학의 발전을 보면서, 특히 망원경의 발전을 보면서 우주의 광대함과 신비에 놀랍니다. 이 광대하고도 정교한 우주를 알면 알수록 누군가가 이 우주를 지었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과학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아무런 제어 없이 풀어놓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반대합니다. “모든 연구는 선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생명체의 발생, 특히 인간의 발생 과정에 관한 연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석종준** 한국교회 내의 창조론 논쟁은 때때로 ‘정통 대 비정통’의 문제처럼 다뤄지기도 합니다. 복음주의 진영 내부의 건강한 토론을 위해 가장 필요한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승훈** 1981년, 한국에서 ‘창조과학’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지난 45년 동안 창조론 논쟁이 일반인들에게 때로 ‘정통 대 비정통’의 문제처럼 다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잘못 받아들여진 데는 저도 일조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로 인해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젊은

지구론', 즉 '창조과학'의 입장에서 '오래된 지구론'으로 돌아선 후에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는 '참된 것', 즉 '진리'(truth)를 말할 때 '사랑 안에서'(in love)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진리를 말한다고 주장해도 사랑으로 혹은 사랑 안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석종준** 총장님께서 오랜 시간 과학자이자 기독교 세계관 운동가로 활동해 오셨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신 한국교회의 창조 담론의 강점과 한계는 무엇입니까?

**양승훈** 한국인들은 열정이 강한 민족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나라에서 일하면서 한국인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열정이 창조론 연구에서도 꽃을 피우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열정 때문에 때때로 다투기도 하고 분열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런 에너지를 창조론 연구를 위한 지적 분투에 쏟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근무하는 에스와티니 기독교과대학교(Eswatini Medical Christian University)를 은퇴한 후에는 창조론 연구와 저술 작업으로 남은 생애를 보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저에게도 가장 큰 두려움은 지적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석종준** 같은 성경을 진리로 함께 붙들고 있는 서로 다른

창조 담론을 가진 신학자와 과학자들이 대화할 때, 서로 생산적 만남이 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조건, 공통 기반 같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양승훈** 첫째, 지적 잠정성입니다. "나는 절대 틀릴 수 없다"라는 경직되고 교만한 태도는 그 자체가 비기독교적입니다. 기독교 진리의 핵심에 해당하는 구원론적 진리는 타협할 수 없지만, 과학적 해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한 주장이나 입장을 지지할 수는 있지만 그런 중에서도 우리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잠정적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서로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과 다른 입장의 사람이라고 해도 그들의 신앙적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유신 진화론'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신 진화론자들의 신앙적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젊은 지구론', 즉 '창조과학'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산더미처럼 축적된 과학적 데이터 때문이고,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신앙적 진정성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석종준** 오늘날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인간 의식, 창의성, 생명의 기원 같은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창조론에도 어떤 도전과 변화가 있겠는지요?

**양승훈** AI 기술이 가져올 변화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기원, 우주의 기원, 인간의 기원, 인간 의식의 기원 등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전문가들의 의견에만 기대지 말고 AI를 활용해서도 직접 공부하는 것을 권합니다. 창조 담론에 대한 도전들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권위에 주눅

들지 말고 직접 찾아보고 공부하는 것을 권합니다. AI 시대의 가장 큰 도전은 우리 손에 쥐어진 엄청난 지식의 도구를 활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적 성실함이 몇몇 전문가들에게만 요구되는 덕목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시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AI를 통해 얻는 내용은 새로운 진리의 발견이 아니라 이미 발표된, 다수의 견해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석종준** 총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창조론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창조론 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경계해야 하거나 회복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양승훈** 첫째로, 아이들의 창의성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창의성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형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창의성을 격려한다는 말은 질문하는 것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질문하지 않고 믿는 맹목적 태도나 반지성주의를 경건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AI 시대에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좋은 질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요 20:25)고 했는데요.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은 도마를 꾸짖지 않으시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요 20:27)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질문하는 신앙, 의심하는 신앙을 가졌던 도마가 결국 모든 제자보다 더 멀리, 인도 남부에까지 가서 순교했다는 얘기는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둘째로, 어릴 때부터 지적 세계의 제사장적 소명 의식을 갖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학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아이들이 후에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제사장적 자세를 갖도록 도와야 합니다. 오

늘날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들만 제사장적 소명을 갖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를 가리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벧전 2:9)이라고 했습니다. 목회자들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생각은 비성경적이며, 중세적 사고요, 반 종교개혁적 사고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전공을 하든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석종준** 마지막으로 AI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창조 신앙은 왜 여전히 중요한지요?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양승훈** 첫째, 철학에 많은 분야가 있지만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존재론입니다. 즉 존재론은 존재의 근본적인 본질, 시간, 공간, 우주의 원리 등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이 존재론에 대한 논의 없이 인식론, 윤리학, 논리학 등의 논의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둘째, 창조 담론은 자신과 주변 세계의 존재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대와 민족을 불문하고 창조론 논의에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현대적 논쟁과는 다소 다르지만, 교회사를 살펴봐도 초대교회 때부터 창조론 논쟁은 뜨거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셋째, 창조 담론은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들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창이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도 결국 존재론적 논의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에 창조 교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창조론 전문 학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진지한 그리스도인이려면 창조 담론이 자신의 신앙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성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FAITH & LIFE**

# ‘집의’(執義) - 믿음의 가치 : 새벽을 깨우는 신앙의 힘

윤태형 (동서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6년 전 기독교학문연구회(이하 기학연) 학술대회 때 발표한 적이 있다. 동서대학교 교수로 부임하고 보건 의료계열 학부장을 하면서 기독교적 가치에 따라 강의와 연구를 하던 열정이 많았던 때였다. 그때 내가 발표한 내용은 자신의 신앙고백이기도 하고, 믿음의 실체에 대한 것이었다.

믿음은 무엇인가? 당사자들에게는 마약, 도박, 이단 등과 같은 잘못된 믿음도 진심일 수 있는데, 과연 그것도 믿음의 한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갖고 기학연 학술대회 논문 발표를 신경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접근하고 준비하였다. 나는 논문에서 들음(Hearing)과 뇌(Brain)에서 일어나는 감각(청각)과 인지의 과정들, 그리고 인지한 것을 시인하는 운동(구움)까지를 신경과학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슷한 부류의 연구자들이 이미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나는 오래전 심리학자들이 뇌의 특정 부분을 자극했을 때 그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자해하였던 생쥐실험을 통해 뇌의 ‘쾌락 보상회로’(reward circuit)을 발견하고, 현재는 이를 적용해서 마약, 도박 등 좋지 않다고 알면서도 계속 그것

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중독자들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방법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 논문 발표 직후를 잊을 수가 없다. 청중 반응은 의아하다는 표정들이었다. 한순간 정적이 흘렀다. 나도 “어떻게 과학을 한다는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를 자문하며 질문에 답을 했다. 좌장을 맡으신 카이스트의 어느 명예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정말 좋은 논문입니다. 혹시, 뉴턴이 만유인력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었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하는 순간 사과나무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통찰하여 나온 것이 만유인력이라는 이론입니다.”

만유인력은 누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었다. 깊은 묵상과 통찰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이었다. 나는 뉴턴이라는 과학계의 큰 거인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유인력을 발견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과학계의 큰 산과 같은 이론과 법칙이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떠셨을까? 완전한 인간이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믿음의 결단을 위한 고민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연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2025년 여름방학 중에 대전 카이스트를 방문하게 되었다. 직접 방문은 처음이었다. 인상적인 것은 교내에 장영실 동상이 세워져 있다는 것이었다. 역시 세계관이 다른 대학이라고 생각했다. 교정에는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했다는 바로 그 사과나무도 있었다. 정확히는 그 사과나무를 네 번째 접목한 사과나무가 있었다. 나무를 보는 순간 나는 6년 전 학회 때 카이스트 좌장 교수님께서 했던 말씀이 생각났다. 나는 현재 그 논문 발표회를 마치고 찍은 사진으로 내 카카오톡 소개 이미지로 삼고 있다.

다시 질문해 본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느 날도 난 어김없이 동서대 대학교회로 향하였다. 나는 매달 첫날 이렇게 교회로 향한다.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예배를 드리지만, 특별히 매달의 첫날은 온 성도가 함께 모여 드린다.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이며 교회인 그곳에서 늘 그렇게 매달 첫날 새벽예배를 드린다. 서울 상도교회를 섬기신 부모님께 받은 믿음의 유산이 이곳 부산 주례동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참 벅찬 일이다. 특별히 그날은 예배에 조금 늦었는데, 예배당에 앞에서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분의 차가 시동이 켜진 채 그대로 있었다. 그 차의 주인은 예배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설립자이자 이사장님이었다. 무엇인가 이상했지만, 새벽예배는 끝났고 나는 그 날도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해부학’과 ‘보조기 및 의지학’을 가르쳤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삶을 묵상해 본다. 십자가 위에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헌

신과 봉사, 그리고 실천을 통해 공동체를 신실하게 섬겨 왔을 것이다. 어머니의 그러한 마음도 진실한 믿음이었을 것이다. 자신의 믿음 위에 더 큰 하나님의 권위와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버텨야만 했던 믿음이 아니었을까. 성경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히 11:1)라고 말씀한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먼저 존재하는 내면의 확신이다.

또 질문해 본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 믿음은 무엇인가? 왜 우리는 그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가? 새벽, 하루를 시작하며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본다. 믿음은 단순히 종교적 확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나는 믿음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치이며, 공동체를 지탱하는 정신적 토대라고 생각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믿음은 개인과 사회를 안정적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된다.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며, 학문의 관점에서는 진리 탐구를 지속하게 하는 내적 동력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앙과 학문’은 서로 대립하는 영역이 아니라 믿음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동반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다시 예배를 드린다. 늘 어김없이, 흔들림 없이 교회의 가장 앞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다. **FAITH & LIFE**



**글쓴이 윤태형**

동서대학교 바이오헬스융합대학 작업치료학과 학과장 및 대학원 작업치료학과·보건과학과 주임교수이다. 연세대학교 재활학과(물리치료학 전공)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보건학 석사, 한양대학교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지역사회 재활, 노인 건강 증진, 연하장애 예방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또한 동서학원 대학교회 안수집사로서 나사렛목장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 and 지역사회 섬김에 힘쓰고 있다.

# 작품은 창작자를, 사람은 창조주를

오주영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기억을 되짚어 보면 나는 교회에서 이따금 ‘금쪽이’로 불리던 아이였다. 고등학생 때에는 자습시간이 싫어 채플로 도망갔던 내가, 학부 때에는 CCC에서 순장으로 섬기며 예수님의 마음을 차차 알아갔다. 그리고 이제는 연구실의 유일한 ‘예수쟁이’(?)로 살아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 여정의 한 자락을 조심스레 풀어 보려 한다.

꼭 지금처럼 태양이 뜨겁게 작열하던 땅, B시에서의 일이다. 당시 나는 졸업작품 마감을 두 달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교수님의 “별로다”라는 말 한마디에 한 학기 동안 붙들고 있던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듯했다. 뒤늦게 대학원 진학을 결심했지만, 컨택에 성공한 연구실은 한 곳도 없었다. 여러모로 마음이 불안하고, 앞날이 선명히 보이지 않던 때였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외국인이 공개적으로 선교하기 어려운 환경이었기에, 식사 자리에서 기도하는 일조차 조심스러웠다. 눈을 뜬 채 마음으로 기도했고, 복음도 한 사람씩 만나 관계를 쌓아가며 신중하게 전해야 했다. 짧은 일정 속에서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과 언어 장벽도 감당해야 했다.

그렇게 어렵게 대화가 이어져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내면 공산당원이 되기를 꿈꾼다고 말하거나, 자신은 유물론을 믿는다며 단호히 거절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한 번은 우정을 생각해 공안은 부르지 않겠지만 다시는 캠퍼스에서 일체의 종교활동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듣고, 가슴이 콩알만 해진 적도 있었다.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뿐이었다. 말재주로도, 전략으로도 한 영혼의 마음을 열 수 없다는 사실을 매 순간 절감했다. 그래서 걸음마다 기도하듯 걷는 ‘3보 1기도’는 어느새 일상이 되었다. “주님, 마음밭 좋은 한 영혼만 보내주세요. 제가 알아볼 수 있게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 한 여학생을 만났다. 나는 여행 온 대학생이라고 소개하며 현지인이 추천하는 장소를 물었다. 뜻밖에도 그 학생은 선뜻 나를 베이징의 한 예술박물관으로 안내해 주었다. 사실 작품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온통 언제, 어떤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다 아주 섬세한 작은 건축 조형물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얇은 선 하나, 작은 기둥 하나까지 정교하게 다듬어진 모습을 보는데 나도 모르게 말이 새어나왔다. “와, 이거 만든 사람은 며칠이나 밤을 새웠을

까?” 졸업작품을 앞둔 예비 창작자였던 나는 그 작품 앞에서 괜히 남 일 같지 않은 마음이 들었다. 저 작은 결과물 하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수정, 포기하고 싶은 밤들이 있었을까. 그런데 그 감탄은 곧 더 큰 감탄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섬세한 작품을 만들어 낸 인간도 이토록 대단한데, 그런 인간에게 생각하고 상상하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고 전지전능하신 분인가. 작품이 창작자의 손길을 드러내듯, 인간의 창의성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비추고 있었다.

그 순간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 자매에게 내가 느낀 감탄을 그대로 나누기 시작했다. “이 작품을 만든 사람도 정말 대단하지만,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더 놀랍다고 생각한다.” 준비해 간 말도, 계산한 타이밍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고백은 자연스럽게 나의 간증으로 이어졌다.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신 분도, 그 말을 용기 내어 꺼내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셨다.

현재 내가 속한 연구실(Smart Structures Lab)의 주된 연구는 AI를 활용한 구조설계이다. AI는 수많은 설계 대안을 만들고, 구조 성능을 예측하며, 사람이 미처 보지 못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 능력 앞에서 놀랄 때가 많다. 동시에 구조를 공부할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더 생각하게 된다. 건물은 겉모습만으로서 있지 않다. 하중의 흐름, 재료의 성질, 연결부의 작은 디테일이 전체의 안전을 좌우한다. 그래서 연구실에서 마주하는 수식과 알고리즘도 내게는 단지 성과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더 성실히 이해하고 이웃의 안전을 섬기기 위한 언어처럼 느껴진다.

베이징에서 만난 그 자매를 떠올릴 때마다, 나는 창조

가 단순한 산출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붙든다. 인간은 성능과 생산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인간의 창의성, 사랑, 실패와 회복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증언한다. AI가 아무리 뛰어난 결과물을 만들어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 작품이 창작자를 가리키듯, 인간의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킨다.

기술이 더 빠르고 정교해질수록 나는 더 선명히 고백하게 된다. 지식의 시작도, 창의성의 근원도, 사람이 사람답게 존귀한 이유도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묻게 된다. 이 지식은 누구를 위해 쓰여야 하는가. 이 구조물은 누구의 삶을 지키는가. 그리고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내가 마주하는 수식과 알고리즘, 설계와 연구의 시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더 깊이 알아가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나의 배움과 삶이 결국 나를 지으시고 이 땅을 붙드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작은 찬양이 되기를 기도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오주영

서울대학교 건축공학 석사과정에서 AI를 활용한 구조설계를 연구하고 있다. 화양교회 인터치청년부에 출석하며, 캠퍼스에서는 건축학과 기도모임을 섬기고 있다. 서울대학교 기독교학생복클럽(대학원)멤버이다.

# 주님은 저의 스펙이십니다

김지은 (덕성여자대학교 교직원)



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 하늘을 바라보기보다 늘 눈앞의 땅만 보았기에, 나의 실패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내 계획으로 가득 찼던 나는 고집대로 일을 추진했고, 결과는 늘 실패였다. 특별히 취업에 있어서 그랬다. 정말 이번만큼은 나에게 딱 맞는 자리라 여겼지만, 주님께서서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왜 주시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마음속은 늘 불안으로 가득했다. 주님과 완벽한 합을 이루며 나아가지 못했던 나날들이었다. 교회에서는 여러 봉사를 맡아 다방면으로 섬기며 나름대로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실패와 기다림 속에 마음과 육신이 지쳐갔고 눈앞에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밀려왔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리고 있는지 혼란스러웠다. 정작 나의 길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교회 동생들과 다른 섬기는 이들에게 내가 무엇을 증명할 수 있을까 싶어 마음이 한없이 위축되기도 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셨다. 내가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

그러던 중, 근무하고 있던 학교에 정규직 채용 공고가

났다.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자리였지만, 정량적인 스펙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지원조차 주저되었다. 그때 주님께서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내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고, 덕분에 담대히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 채용 과정 중에 외대교회 지체들의 중보기도는 큰 힘이 되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면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용기가 샘솟았다. '여호와 닛시'의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갔고 마침내 최종 면접까지 마쳤다. 당연히 이번에는 문을 열어 주실 것이라 확신했지만 결과는 최종 탈락이었다.

하지만 이전의 실패들과는 달랐다. 불평과 불안 대신 감사함이 먼저 찾아왔다. 최종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은혜였고 그저 감사였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로 준비했기에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다음 기회를 잘 준비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도전 정신도 생겼다. 주님이 나의 스펙이시기에 겸손히 결과를 받아들이고 주님과 동행하며 앞길을 준비할 수 있었다. 본래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던 어느 날, 기적처럼 추가 합격 소식을 전해 들었다. 정말 주님께서 하셨다는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 마치 주님께서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 한 것이다"라

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터널을 통과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나를 위한 자리를 미리부터 예비하시고, 이전에 맞지 않는 취업 자리를 걸러내시며 가장 선한 타이밍에 맞춰 인도해 주신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21살, 서울에 상경해 외대교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였다. 워낙 고집과 자기 의가 강했기에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묵묵히 기다려 준 목사 언니와 교회 지체들의 바른 가르침 덕분에, 방황하고 멀어지다가도 다시 되돌아와 삶의 방향을 맞출 수 있었다. 또한 '다니엘 기도(하루 세 번, 6시 11시 30분 8시, 월~금)'를 통해 주님과 깊이 대화하며 친밀해졌고, 기도 제목들이 나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고 타인과 세상을 향해 확장되면서 은혜의 간증도 풍성해졌다.

다른 지체들의 간증을 들을 때 질투보다는 동일하신 주님께서 내 삶에서도 역사하실 것을 믿는 은혜가 생겼다. 주님께서는 그저 버티며 붙어만 있었던 나에게, 때로는 자원함이 아니라 억지로 나아갔던 나에게도 잘했다고 칭찬하시며 과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자격 없는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교회에 큰 은혜가 임하는 이 시기에 내가 온전히 잘 반응하고 있는지,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잘 준비되고 있는지 불안함이 앞서기도 한다. 이제는 교회의 목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또 마음이 앞선다. 늘 그래왔듯이 주님께서 알아서 인도하실 텐데, 또다시 혼자 발을 동동 구르며 주님보다 앞서 나가려 한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다.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으로서 빨리 적응해야 한다는 책임과 부담 때문에 마음이 앞선다. 그럴 때면 또 주변 사람들과 말씀을 통해 주님보다 앞서가고 있음을 깨닫

게 하신다. 내 힘을 빼고, 주님과 동행하며 합을 맞춰 가야 함을 오늘도 여전히 느낀다. 일터에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마주하는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시 136:23)

주님은 비천한 나를 택하셔서 주님을 알게 하였고, 간절히 원하던 직업도 나의 한계를 아시어 그리 오래 지체하지 않고 때에 맞게 허락해 주셨다. 나의 스펙이 주님이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할 때마다 주님께서 하셨음을 잊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만 의지하리라 다짐한다. 또한 교회와 주변 지인들에게 이 채용 과정의 간증을 전하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부지런히 드러내고 싶다. 이번 여정을 통과하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 불안한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뿐이었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불안함이 나를 휘감았지만,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면 이내 마음은 잔잔해졌다. 흔히들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자기최면의 말을 많이 한다. 하지만 마음을 선행하고 담대히 먹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이제는 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다. 새로운 챕터인 일터에서의 동행 역시, 주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FAITH & LIFE**



#### 글쓴이 김지은

덕성여자대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모태신앙이지만 21살, 외대교회 공동체로 오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현재 외대교회 목자 및 사단법인 국제학생회(ISF) 북서울지부 교사로 섬기고 있다. 주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고,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겸손히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

## 관계로 이끄시는 하나님

문지명 (약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나는 2026년 2월에 약학 전공으로 학부를 막 졸업하고 대학 선배님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일하면서 군대 입대를 기다리고 있다. 대학 시절 서울대학교교회(이하, 대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대학 캠퍼스 생활 동안 나를 가장 많이 변화시킨 것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았다.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던 밤, 어르신의 손을 잡고 고맙다는 말을 듣던 순간 등 모두 관계의 순간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늘 관계를 통해 나를 이끄셨고, 또 관계로 나아가게 하셨다.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대학교회에 와서 가장 처음 배웠던 것은 말씀 묵상이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일요일 하루만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러한 나를 교회의 우등생으로 여겼다. 그런데 매일 일정 분량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을 실천하던 대학교회 사람들을 보며, 내 신앙생활의 부족함을 깨달았고 매일 말씀 묵상에 동참했다. 처음부터 묵상이 잘 이루어지지지는 않았다. 신앙생활로 하기보다도 타성으로 하다 보니 표면적이고 피상적이었다. 이해가 되지 않던 말씀들은 그저 의문을 품고

서 살아갔다. 하지만 어느 순간,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느꼈다. 말씀으로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시켰으며 삶의 자리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억에 남는 장면은 연애할 때이다. 연인과의 전화를 마치고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던 와중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도 중에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하나씩 가르쳐주셨고, 연인에게 했던 모진 말들에 사과했다. 이러한 순간들이 모여, 지금은 매일의 말씀 묵상이 삶의 큰 기쁨이 되었다. 피상적이고 타성에 젖은 신앙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개인적으로 나와 관계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이다. 의료봉사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한 적이 있다. 여름방학마다 근처에 병원이 없는 무의촌으로 장기봉사를 나가 진료를 보았고 해당 지역에서 병원 방문이 필요하지만, 거동이 힘든 어르신들의 댁에 직접 방문하여 진료를 보며 봉사했다. 의료계 현업에 계시는 동아리 선배님들께서 진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고, 학생들끼리 진료할 때 보이지 않던 변화가 선배님들이 진료할 때 비

로소 보였다. 선배님께서는 간단한 상담만으로 환자의 약 복용을 조정하셨고, 그것만으로 약의 부작용이 치료되는 장면을 직접 보았다. 진료받은 어르신께서 내 손을 잡고서 고맙다고 얘기해 주신 것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따뜻했던 손 그리고 울 듯하게 찡그린 표정이 나의 가슴속에 박혔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던 말씀이 그 순간 머리에 번뜩였고, 이 시대에 소외된 자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어르신을 향한 깊은 긍휼이 밀려왔다. 이웃과 관계함으로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심어졌다. 나를 치료하는 곳에서, 나 또한 치유 받았고 변화되어 갔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대학 시절 전공 공부하며 주위 친구들에게 왜 공부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 그때마다 친구들 대부분은 별 목적이 없고, 그런 것을 물어보면 머리만 아파진다고 물어보지 말라고 했다. 문득 시험 기간 약물 이름과 기전을 생각 없이 괴롭게 외우고 있던 나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해봤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 하는 것이었다. 죄인인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창조 본연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고민했다. 처음에는 나도 친구들과 다르지 않게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 여러 날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씨름했다. 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초조함도 깊어졌다. 그때 떠오른 것이 무의촌에서 어르신들의 손을 잡았던 순간이었다. 강렬했던 그때의 긍휼이 다시 나를 잡아당겼다.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을 대면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싶은 것이 내임을 알았다. 그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것을 위해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며 나를 향한 부르심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 묵상과 기도로 그 길이 내

가 나아가야 할 길임을 확신을 주고 계신다.

구체적으로 의료의 최전선에 있는 환자들을 눈으로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병원 약사의 진료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그 모양이 어떠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소외되고 아픈 사람과 관계하도록,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며 나 또한 변화시키시도록 이끄신다. 그 소명을 향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관계로 나를 이끄실까. 지금은 군대를 기다리며 지역 약국에서 잠시 일하고 있다. 카운터 너머로 찾아올 환자를 기다리며 매일 무의촌에서 어르신으로 느꼈던 긍휼을 기대한다. 한 명의 지나치는 환자를 만날 때에도 그분의 필요를 채우며 나 또한 배우며 나아가고 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도 묻는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관계로 부르시고, 관계로 보내신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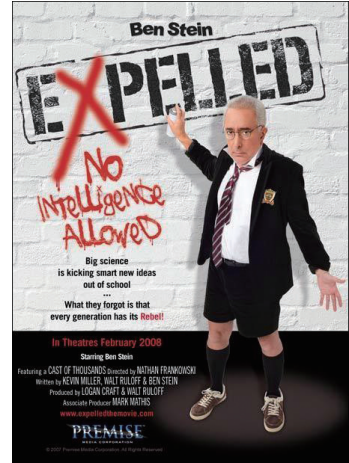
#### 글쓴이 문지명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이촌동 지역 약국에서 일하며 군입대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대학교회의 청년이며 '새친구반' 목사, 찬양팀 싱어, 서울대학교 수요일예배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다. 서울대 기독교생 북클럽 멤버이다.

# 지적설계론을 주장할 수 있는 학문의 자유를 묻다

-영화 <추방: 허용되지 않은 지성>

강진구 (고신대학교 성경학과 교수, 영화평론가)



## 도킨스를 머리끝까지 화나게 만든 영화

나단 프랭코츠키(Nathan Frankowski)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추방: 허용되지 않은 지성>(Expelled: No Intelligence Allowed, 2008)은 호전적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를 맹렬히 화나게 만든 영화로 유명하다. <만들어진 신>을 통해 창조론을 호되게 비판했던 그가 정작 '지적설계론'(Intelligent Design)을 옹호하는 영화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당초 제작사인 램펜트 프로덕션은 <추방>이 아닌 <교차로>(Crossroads)라는 중립적인 가제를 내세워 "종교와 과학이 만나는 접점의 논쟁을 다룬다"라고 접근해 도킨스의 인터뷰를 끌어냈다. 그러나 완성된 영화는 진화론을 중심에 둔 과학계를 '편협하고 억압적인 조직'으로 몰아붙였다. 영화에서 도킨스는 사회자로 출연한 미국의 교사 출신인 영화 제작자 벤 스타인(Ben Stein)의 능청스러운 질문에 "종교는 가장 혼란 형태의 미신으로 정말 쓸데없는 것"이라고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그는 생명의 기원만큼은 설명하지 못하고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과학계 최고의 이 달변가가 버벅대는 모습은 이 영화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을 만하다.

영화는 지적설계론에 우호적 견해를 표명했다가 불이

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과 교수들의 사례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지적설계론 논문을 쓰는 바람에 학계에서 매장당한 리처드 스타이버그 박사, 그리고 이와 유사한 연구 성향을 가졌다는 이유로 아이오와 대학에서 종신 교수직을 거부당한 천체물리학자 기에르모 곤잘레스 등의 실제 사례를 추적했다. 이는 지성의 전당인 대학과 과학 연구 기관이 '초자연적 지성'을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학자들을 어떻게 매도하고 추방하는지, 그 억압적 실상을 영화라는 대중적 매체의 파급력을 극대화하여 고발하는 탁월한 구성을 보여준다.

설명 중심 구조의 기존 다큐멘터리와는 달리 탐사 저널리즘 형식을 적극 활용한 것도 이 영화의 큰 특징이다. 스타인은 직접 대학과 연구기관을 방문하고, 지적설계론자와 진화론자를 차례로 인터뷰하면서 일종의 '진실 추적극'을 만들어낸다. 또한 베를린 장벽, 전체주의 체제, 홀로코스트 이미지 등을 반복적으로 삽입해 과학적 논쟁을 문화적·철학적 갈등의 차원으로 확장시켰다. 영화적 완성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논쟁적 다큐멘터리가 사회적 의제를 형성하는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큐멘터리 영화사적으로도 흥미로운 사례라 할 수 있다.

## 영화 속 지적설계론과 극명하게 갈린 반응

전통적인 창조론이 성경의 권위에 기반한 신앙적 선언이었다면, 영화가 제시하는 지적설계론은 ‘과학의 방법론’을 표방한다. 현대 진화론 중심의 일반 학계는 지적설계론을 향해 “비이성적이며 몰과학적인 종교적 주장일 뿐”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영화 <추방>은 세포의 복잡성, 생명의 기원 문제, 우주의 미세조정 등을 제시하며 설계의 가능성을 강조한다. 특히 지적설계론은 성경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자연계의 복잡성을 근거로 논의를 전개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그렇다고 이 영화가 진화론에 대항하여 지적설계론의 과학적 승리를 입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영화의 핵심 설득력은 “지적설계론이 옳다”라는 주장보다 “그 주장을 제기할 자유는 보장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있다. 학문 공동체가 특정 가설을 반박하는 것과, 이에 논의를 장에서 배제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점을 영화는 집요하게 제기한다.

영화는 미국에서 개봉 첫 주 박스오피스 9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화가 공개되자 미국 사회는 거대한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특히 영화의 개봉 시점이 미국 대선 유세전이 본격화되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정치적·사회적 파장은 더욱 증폭되었다. 과학계와 주요 언론은 제작진이 대선 시점에 맞춰 ‘진화론 대 창조론’ 논쟁을 의도적으로 촉발하고, 이를 통해 ‘보수 대 진보’의 정치적 대결 구도를 부채질하려 한다며 의심과 우려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반면, 기독교계와 신앙인들은 이 영화를 향해 열렬한 환호와 지지를 보냈다. 과학 다큐멘터리는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즐겁고 통쾌하게 볼 수 있는 명작이라는 찬사가 이어졌다. 특히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교사들에게는 신앙과 과학

의 통합을 가르칠 수 있는 ‘최상의 교육 자료’로 평가받으며 교계 전반에 큰 영적 활력을 불어넣었다.

## 진화론 권력에 맞선 다큐멘터리가 갖는 시대적 의미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대학과 연구 기관에서 신앙적 세계관이 공개적으로 표현되기 어려운 분위기를 경험한다고 말한다. 필자 역시 대학 신입생으로 ‘과학사’를 수강하던 시절 이를 경험할 수 있었다. 한 과학사 교수의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는데, 마침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던 내 친구가 수업 중 손을 들고 하나님의 우주 창조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당시 강의실에는 질문한 친구를 포함하여 종교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여러 명 있어서 우리는 흥미진진하게 교수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런데 그 교수는 자신의 수업 시간에는 창조론에 대한 어떠한 말도 꺼내지 말라는 거친 말을 내뱉으며 내 친구를 강의실에 쫓아내 버렸다. 그 교수는 나중에 ‘한국의 도킨스’ 같은 유명 인사가 되었고, 내쫓긴 학생은 수강 철회로 맞설 수밖에 없었다. 과학이 특정 결론을 옹호할 수는 있지만, 특정 질문 자체를 금지하는 순간 과학은 탐구가 아니라 이념이 될 위험에 직면한다. <추방>이 제기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영화가 기독교 지성인들에게 던지는 도전은 단순히 창조냐 진화냐의 선택이 아니라, 진리 탐구의 장에서 신앙적 관점도 정당한 대화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일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강진구

고신대학교 성경학과 교수이자 영화평론가이다. 극동방송의 해설이 있는 영화극장을 통해 기독교 영화 전파에 힘을 쏟으며 대중 강연과 미디어를 통한 문화선교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죽음과 종교>, <감성세대의 영화 읽기> 등이 있다.

#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창조성을 다시 묻다

서성록 (안동대학교 미술학과 명예교수)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화단의 풍경을 뒤흔들며 시각 이미지를 출중하게 재현해 내는 요즘에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알고리즘이 단순히 뽑아내는 휘황찬란한 결과물의 범람 앞에서 과연 기계의 무결한 '생성'(Generation)과 인간의 고독한 '창조'(Creation)를 가르는 기준점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그 단서를 데이터나 기술의 고도화가 아닌, 우리가 입고 있는 '신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술가들이 혼신의 힘으로 성취해온 역사는 신체성이 결여된 디지털 연산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인간 창조성만의 고유한 영토를 증언한다.

폴 세잔(Paul Cézanne)이 고향의 생빅투아르 산을 수 천 번 바라보며 마주했던 실존적 고뇌는 테크닉의 부족이나 능력의 한계 때문은 아니었다. 작가는 눈앞의 산(대상)과 그것을 바라보는 화가(주체)의 경계가 무너지고, 산이 화가의 몸을 빌려 스스로를 화폭에 드러내는 상태에 이르러자 했다. 모리스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는 세잔의 작품을 인간이 세계와 맺는 원초적인 지각적 소통이라고 기술하였다. 자연이 인간의 신체에 부딪혀 오는 원초적이고 날것의 경지를 포착하려 했던 세잔은 자신이 사물에서 발견한 쪼개진 색면의 덩어리들이 흙여 안질이라는 신체적

결함이나 사고에서 비롯된 착각이 아닐까 괴로워했다. 사과 한 알을 온전히 표현하고자 수십 차례의 지우기와 덧칠하기 등 산고를 치르며, 그림에도 자신이 도달하고자 한 단계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자책한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것은 예술가의 근성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창조주가 피조세계에 숨겨두신 변하지 않는 구조를 붙잡으려는 시도였다.

반면 인상주의의 거장 클로드 모네(Claude Monet)가 말년에 지베르니 정원에서 직면했던 고뇌는 창조 세계의 수면 위에 내리찍는 시간의 흐름 속에 스러져가는 '순간의 소멸'을 붙잡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다. 시시각각 변하는 빛과 수면의 진동을 포착하려는 그의 야망은 말년에 찾아온 백내장이라는 복병을 만나 크게 흔들렸다. 세상이 둔탁한 황갈색 안개 속으로 침전되고, 수술 후에는 사물이 왜곡되고 온통 푸르게 보이는 청시증(Cyanopsia)의 후유증 속에서도, 그는 팔레트 위 물감의 순서에 의지한 채 간신히 <수련> 연작을 제작하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작품에 도저히 만족할 수 없었다.

전시를 몇 주 앞둔 모네는 15점 이상의 <수련> 작품을 소각해 버렸다. 당시 프랑스 총리였던 조르주 클레망소(Georges Clemenceau)는 모네가 기증하기로 약속



오랑주리 미술관에 소장된 클로드 모네의 수련

한 오랑주리 미술관의 벽화마저 파괴해 버릴까 싶어 모네를 달렸다고 한다. 신체적 한계와 표현의 불가능성 앞에 마주선 모네의 무력감은, 점차 무너져 가는 육신을 온몸으로 감내해야 했던 처절한 실존을 보여준다. 세잔이 사물의 구조를 찾으려 순간을 포기했다면 모네는 <수련>을 통해 순간의 오묘함을 포착하려 구조를 포기하는 상충된 측면을 보였으나, 두 사람 모두 육체적 한계를 무릅쓰고 작업을 지속했다.

이러한 거장들의 예술적 실천은 메를로-퐁티가 주장한 '회화는 눈이 아니라 몸으로 경험되는 현상'이라는 미학적 명제를 육화한다.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봄(Seeing)'이라는 행위는 세계를 멀리서 객관적으로 관조하는 데카르트적 카메라 렌즈 같은 시각과 구별된다. 그것은 캔버스 주위를 서성거리고, 재료들과 육신 각신 씨름하며, 지쳐가는 근육의 긴장과 촉각이 실타래처럼 얽힌 전신(全身)의 총체적 사건이다. 화가는 세계를 밖에서 관찰하는 투명한 지성이 아니라 세계라는 거대한 '살(Chair)' 속에 파묻혀 함께 호흡하는 육화된 의식, 즉 '몸-주체'이다. 이는 성육신의 신비처럼, 인간의 예술적 실천 또한 육체를 통과할 때 비로소 진실해짐을 보여준다. 회화는 무결한 눈의 기록이 아니라 취약한 몸이 세계와 충돌하며 자아낸 가역적 사건의 흔

적이자 감각의 퇴적물인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공지능의 창조물과 예술가들의 마스터피스를 가르는 기준을 발견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화된 거장들의 화풍을 규칙에 따라 최적의 아웃풋을 뽑아내지만, 거기에는 '신체'가 결여되어 있다. 인공지능은 세잔을 밤낮으로 괴롭혔던 지독한 회의를 알지 못하며, 모네의 시야를 흐려놓았던 백내장의 황갈색 안개를 경험할 수 없다. 기계의 연산은 노화도, 굶주림도, 죽음에 대한 공포도 알지 못하기에 그 어떤 '실존적 진실'도 담아내지 못한다. 모래 속에 발가락을 넣고 끄지락거렸을 때의 감촉과 숲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 들풀 위에 맺힌 이슬방울을 보다가 문득 경이감을 마주하는 순간을 과연 인공지능이 똑같이 느낄 수 있을까. 우리가 만끽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감수성을 일으키는 시어를 써내려 가는 예술가들에게 신체는 기계의 '비육신화(Disembodiment)'로 달성할 수 없는 생(生)의 경이로움을 온몸으로 증언하는 '지각의 성소'이다.

결국 예술적 창조의 특성은 기계적 계산의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부여받은 주체가 창조 세계를 지각하고 체험한 바를 온몸으로 실어내는 성육신적 응답에 있다. 인간의 창조성은 '하위 창조자(Sub-creator)'가 삶의 세계를 관통하면서 겪는 실존적 진실, 그리고 소명의 땀방울 속에서 한층 그 놀라운 신비가 증명되기 때문이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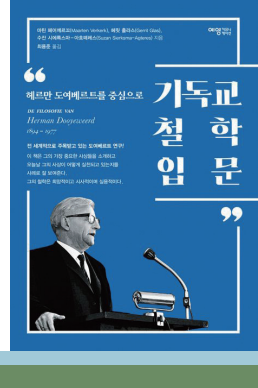


#### ✍ 글쓴이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명예교수이다. 홍익대 서양학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동서 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전후의 한국 미술>, <한국 현대 회화의 발자취>, <한국 미술 노트>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예술과 영성),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갈빈주의 예술론> 등이 있다.

# 신앙과 학문의 통일성을 향한 친절한 초대

김남국 (한샘교회 담임목사)



〈기독교 철학 입문 - 헤르만 도어베르트(Herman Dooyeweerd)를 중심으로〉 / 마틴 페어게르그 외 / 최용준 역 / 예영커뮤니케이션 / 2026 / 288쪽

## 도어베르트 철학을 두려워하는 독자들을 위한 안내서

철학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렵고 낯선 세계를 떠올리게 한다. 특히 헤르만 도어베르트의 철학은 개혁주의 철학의 정점으로 평가받으면서도 동시에 난해하기로 유명하다. 그래서 도어베르트를 소개하는 책들은 적지 않지만, 정작 그의 사상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곤 한다.

〈기독교 철학 입문〉은 바로 이러한 독자들을 위해 세분의 저자들이 공동저술한 도어베르트 입문서이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저자들이 단순히 도어베르트의 철학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자들의 손을 잡고 한 걸음씩 사상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점에 있다. 마치 험준한 산을 오를 때 경험 많은 안내자가 길을 설명해 주고, 중간중간 쉼터를 마련해 주며, 정상에서 바라보게 될 풍경을 미리 보여 주는 것과 같다거나 할까.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스피어(J. M. Spear)의 〈기독교 철학개론〉(CH북스역간), 칼스베이크(L. Kalsbeek)의 〈기독교인의 세계관〉(성광문화사 역간), 그리고 내쉬(Ronald H. Nash)의 〈도어베르트와 기독교 철학〉(성광문화사 역간)과 구별된다.

스피어가 도어베르트 철학의 개요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안내서라면, 칼스베이크는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이를 쉽게 풀어낸 해설서이다. 내쉬는 도어베르트 철학의 강점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반면 본서는 도어베르트의 사상을 오늘의 독자들이 실제로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입문서라는 독특한 장점을 가진다.

## 독자를 배려한 탁월한 구성

이 책을 읽으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독자들을 위한 저자들의 세심한 배려이다. 대부분의 철학 입문서가 개념 설명과 맥락에 집중하는 반면, 본서는 각 단원을 ‘서론-문제 제기-맥락-핵심 내용-정교회-평가와 비판-현대적 적용’이라는 일관된 구조로 전개한다. 이러한 구성은 독자들이 단순히 철학적 개념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왜 이러한 사상이 등장했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특히 ‘평가와 비판’ 부분은 도어베르트 철학을 무조건

수용하기보다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다.

또한 각 장에 수록된 그림과 '심화 학습' 코너는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개인적으로는 본문을 처음부터 읽기보다 그림과 도표, 심화 학습, 평가와 비판, 현대적 적용 부분을 먼저 읽고 전체 흐름을 파악한 후 본문을 읽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숲을 먼저 본 뒤 나무를 살펴보는 것처럼 복잡한 철학 체계를 보다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론과 적용의 균형 있는 연결

내용 구성과 주제의 전개 또한 매우 인상적이다. 전반부는 도어베르트 철학의 핵심 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의미, 지식, 종교적 기본 동인, 양상 이론, 통일성, 사물, 사회단체, 선형적 비판, 철학과 기독교 신앙, 인간 이해, 그리고 도어베르트 이후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그의 사상 전반을 폭넓게 다룬다. 특히 도어베르트의 '종교적 기본 동인' 이론은 인간 사과의 중립성을 비판하며, 모든 철학과 학문이 궁극적인 신앙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다양한 양상 이론은 인간과 세계를 경제나 과학과 같은 단일한 관점으로 환원하려는 현대 사상의 한계를 지적하며, 반대로 창조 세계의 풍성함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 책의 진정한 강점은 후반부에 있다. 후반부는 실제적 적용, 자연과학과 기술, 경제, 정치, 보건, 공간과 장소 등의 주제를 다루며, 도어베르트 철학이 오늘날의 현실 문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준다. 이 부분에서 도어베르트 철학에 대한 밝은 전망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기독교 세계관의 이론적 토대와 실제적 적용을 담고 있는 도어베르트의 사상을 더 쉽게 풀이해서 한국 교회와 세상에 소개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국내외의 많은 기독교철학자들이 먼저 실천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책

<기독교 철학 입문>은 단순히 도어베르트 철학을 소개하는 입문서가 아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무엇보다도 저자들은 어려운 철학 체계를 설명하면서도 독자들을 혼자 내버려두지 않는다. 곳곳에 마련된 그림, 심화 학습과 비판적 논의, 그리고 현대적 적용은 독자들이 사상의 숲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다.

무엇보다 이 책은 그동안 도어베르트의 이름은 들어 보았지만, 그의 사상이 너무 어렵게 느껴져 선뜻 도전하지 못했던 독자들에게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도어베르트 철학이 어렵다는 이유로 망설여 왔던 독자들이라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이 책을 통해 함께 도전해 보기를 권하고 싶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장 한 장 읽어 가다 보면 신앙과 학문, 교회와 세상, 믿음과 삶을 하나의 통일된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도어베르트의 깊은 통찰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기독교 세계관과 개혁주의 철학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반드시 일독할 가치가 있는 저작이다. 특히 신앙과 학문, 교회와 사회, 믿음과 삶의 관계를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쯤 독자는 단순히 도어베르트를 이해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더욱 넓고 깊게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될 것이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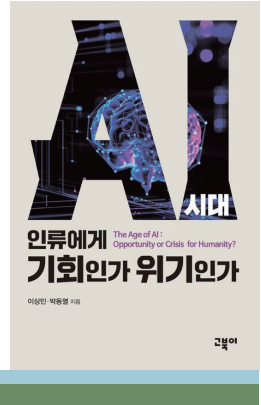


 글쓴이 김남국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한성교회 담임목사이다. 백석대에서 기독교철학(중세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Ph.D)를 받았고, 현재 대학교에서 교양 과목을 가르치며, 평소 개혁주의 신학과 기독교철학 그리고 인문학 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 장밋빛 기대 뒤에 숨은 재앙의 그림자

오석현 (미국 Caroline University 경영학과 교수)



〈AI 시대, 인류에게 기회인가 위기인가〉 / 이상민 · 박동열 / 도서출판 고북이 / 2026 / 411쪽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인공지능(AI) 시대의 명암을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제1부에서는 일상생활과 교육, 보건의료와 제약, 금융과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활발히 활용되는 AI 기술을 폭넓게 소개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트랜스휴머니즘, AI 예술, 가상 인플루언서 같은 새로운 쟁점들을 다룬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공 일반지능’(AGI)이 머지않아 실현되어 질병과 빈곤, 기후변화까지 해결해 줄 것이라 주장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장밋빛 기대 뒤에 자리한 빅테크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우리 사회의 막연한 환상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제2부는 이 책의 심장부다. 생성형 AI의 ‘환각’ 현상과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적대적 공격에서 출발하여, ‘디지털 파놉티콘’으로 상징되는 민주주의의 위기,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청년층의 ‘사다리 단절’, 자율살상 무기, 딥페이크와 가짜뉴스, 알고리즘 편향에 이르기까지 AI의 부정적 영향을 조목조목 짚어낸다. 특히, 저자들은 자크 엘룰(Jacques Ellul)과 한스 요나스(Hans Jonas) 같은 고전적 기술철학자들의 통찰, 곧 기술의

자율성과 양면성 및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윤리 등을 소환하며, 스튜어트 러셀(Stuart Russel), 무스타파 슐레이만(Mustafa Suleyman), 닉 보스트롬(Nick Bostrom), 유발 노아 하라리(Yuval Noah Harari) 등 현대 AI 전문가와 사상가들의 경고를 차례로 전한다. 이들의 경고는 결코 공상이 아니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연구팀의 실험에서 챗지피티·제미니·클로드가 벌인 21차례의 가상 전쟁 중 무려 20번에서 핵무기가 발사되었다는 보고는 AI가 가져올 수 있는 재앙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제3부는 건설적인 대안을 향해 나아간다. 저자들은 ‘생명미래연구소’의 ‘아실로마 인공지능 23원칙’, ‘국제전기전자공학자협회’의 ‘윤리적 조율 설계’ 같은 국제적 윤리 규범과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 ‘히로시마 인공지능 프로세스’ 같은 법 제도 및 국제 협약을 소개한다. 저자들이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은 인간과 AI의 공존, 협력적 파트너십, 신뢰할 수 있는 AI, 그리고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다. 소수가 기술을 독점하는 ‘인공지능 만능주의 사회’가 아니라, AI 인프

라를 공공재처럼 활용하고 혁신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인공지능 협력 번영 사회'가 저자들의 비전이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균형 잡힌 시선이다. 저자는 AI를 무조건 찬양하지도, 무차별적으로 비판하지도 않는다. 도래한 AI 시대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 도사린 위험과 재앙을 정직하게 직시한다. 빅테크 기업이 "AI가 인간을 대체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좀처럼 반박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 자신들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나, 한국이 '초거대 AI 보유국'이라 자축하는 것이 실제 기술력의 우위가 아니라 정책 목표와 개발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착시일 수 있다는 진단은 신선하면서도 날카롭다.

특히, 이 책이 그리스도인 시민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저자들이 지적한 '윤리적 진공상태'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기 때문이다. AI를 신성시하며 신의 경지에 올려놓으려는 움직임, AI의 힘을 빌려 생물학적 한계를 뛰어넘어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려는 트랜스휴머니즘의 망상은, 성경이 일관되게 경계해 온 우상숭배와 바벨탑의 현대적 재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돌보는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나 이 다스림은 정복이 아니라 사랑과 책임에 기반한 청지기직이다. 저자들이 지적하는 노동시장의 'K자형 불평등', AI 격차로 인한 새로운 소외 계층의 등장 같은 문제들은 약자에 대한 우선적 관심을 강조해 온 성경의 가르침과 직결된다.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이 책은 AI 기술서가 아니라 "AI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인문적·윤리적 성찰의 책이기에 신학적 분별을 추구

하는 목회자와 성도 모두에게 적합하다. 둘째, 방대한 주제를 균형 있게 다루면서도 독자가 스스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안내한다. 셋째, AI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나 무비판적 열광 사이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귀한 나침반이 되어준다.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과 스텐퍼트 러셀이 경고한 대로, AI 개발의 성공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될 수도, 마지막 사건이 될 수도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이 책은 그 깨어 있음을 위한 깊고 진실한 부름이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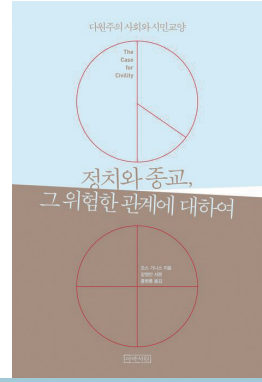


글쓴이 오석현

한양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Caroline University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시라는 시대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AI 비즈니스 관리'에 대한 대중적 논의를 본격화하고자 <AI 비즈니스 정복하기>라는 신간을 펴낸 바 있다.

# 경청의 정치 공동체를 만드는 교회

정명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석사과정)



〈정치와 종교 그 위험한 관계에 대하여〉 / 오스 기니스 / 홍병룡 옮김 / 아바서원 / 2026 / 321쪽

2004년 1월 19일, 세계가 주목한 두 인물의 만남이 있었다. 한 사람은 후에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되는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 다른 한 사람은 ‘공론장’(Öffentlichkeit)의 개념을 제시한 현대 철학의 거장 위르겐 하버마스였다. 각각 신앙과 이성으로 대표되는 두 사람은 만남을 통해 서로의 말을 귀담아들었고, 종교가 지닌 통찰이 이성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정치 공동체의 일이 종교와 분리될 수 없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오스 기니스(Os Guinness)가 쓴 〈정치와 종교, 그 위험한 관계에 대하여〉도 그러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저자는 책의 서두에서 미국이 다른 국가들이 닮고자 하는 모델의 지위를 상실했음을 안타까워하며, 그 원인을 ‘시민교양’(civility)의 붕괴에서 찾고 있다. 그가 말하는 시민교양이란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 곧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 그리고 이로부터 비롯되는 표현의 자유에 기반한 정신을 의미한다. ‘여럿으로 이루어진 하나’(E pluribus unum)의 미국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상황을 보며 저자는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개념과 유사한 ‘공적 광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의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역할을 다해야 하는 주체가 바로 교회이다. 저자가 강조하듯 종교와 정치는 완전히 분리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 된다. ‘정교분리’가 본래 의미하는 바는 정치권력이 종교적 사안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종교가 정치 공동체의 문제를 도외시하라는 것이 아니다. 정교분리 확립의 역사가 한 공동체, 더 나아가 한 개인의 종교를 결정할 권리에 관한 투쟁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는 개인의 존엄성을 지탱하는 제일의 원리이며, 교회는 정치 공동체의 기반을 지탱하는 ‘첫 번째 정치제도’이다. 따라서 교회는 정치의 문제, 곧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두고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교회가 시민사회의 주축으로 바로 서서 공론장에서 자신의 몫을 다할 때, 다양한 목소리가 존중되며 국가의 영역이 개인의 본질적인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건강한 사회가 형성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공적 광장이 바람직한가? 저자의 표현을 빌리면, 우선 종교의 가치를 배제한 '벌거벗은 공적 광장'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종교를 정치의 문제에서 완전히 차단하는 세속주의적 방법은 오늘날과 같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분란만을 더욱 조장할 뿐이다. 다양한 종교적 가치를 배제한다는 계획 자체부터가 개인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이다. 또한 이렇게 설립된 공적 광장에서는 세속주의라는 '단일종교'가 공론장을 지배할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그러한 광장의 설계자들이 강조하는 '관용'은 강자가 약자를 향해 베푸는 호의라는 측면에서 타인에 대한 강압이나 심하게는 폭력의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 세속주의적 공론장은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실제로는 많은 구성원의 이야기를 차단하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신성한 공적 광장'을 지향점으로 삼아도 안 된다. 교회 혹은 기독교가 공적 영역에서 특혜를 받도록 하는 '신성한 공적 광장'의 구상은 일견 구미를 당기게 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공적 영역에도 이루어진다는 생각에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는 '벌거벗은 공적 광장'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교회에 위협하다. 우선 정치권력의 비호를 받는 교회는 생명력을 잃는다. 만약 교회가 공적 영역에서 특혜를 얻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국가가 주장하는 바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국가의 논리와 어긋나는 이야기를 했다가는 특권을 잃게 되므로, 국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오히려 국가의 불의한 행위를 옹호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추종하게 된다. 교회와 정치의 유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권력을 위한 '쓸모 있는 바보' 내지 '유순한 보병'이 된다. 나치

정권의 정책을 지지하는 데에 앞장섰던 주체가 당시 독일 교회였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적 영역에서 교회에 특권을 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격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교회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려면 교회는 정치적 특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저자가 강조하듯 교회가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정치적인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다.

이 책에서 제시한 해결책을 우리 사회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저자가 강조한 시민교양 혹은 공동선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일이 중요하다면, 한국에서는 공동선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일이 급선무일지도 모르겠다. 민주화 이후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진 한국 사회이지만, 공동체 차원에서 어떠한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빈약했다고 생각된다. 이에 우리 한국교회는 이러한 이야기가 공적 광장을 통해 활발하게 나누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듣는 마음'일 것이다. 다른 이들의 이야기가 설령 불편하거나 틀리더라도, 들을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교회가 경청할 용기가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 앞장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 있기를 바란다. **FAITH & LIFE**



#### ✍ 글쓴이 정명현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서울대 서양사학과와 정치외교학부를 복수 전공으로 졸업했다. 학부 시절 서기연(서울대 기독교인연합) 대표, 서울대 CCC 순장, 매주 1회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공부 멘토링 봉사료 섬겼다. 현재 서울대 기독교학생 복클럽 총무, 판교 예복교회 청년이다. 교회에서 주일예배 방송팀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 '현대 문화 알아보기' 프로그램에 대하여



2026년 상반기 서울중앙교회(예장 고신)에서는 장년교육과정 <세상의 삶> 영역 과목으로 '현대문화 알아보기'를 12주 동안 진행했다. 강사는 신국원 교수님(총신대 명예교수)이었으며, 장년과 청년 성도 약 30명이 매주 목요일 저녁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했다. 교재로는 낸시 피어시의 <세이빙 다빈치>를 사용했고, 매주 정해진 분량을 읽고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본 과목은 현대 문화의 흐름을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수강생들은 계몽주의, 낭만주의, 상대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 현대 문화의 주요 사조를 살펴봄에 문화 속에 담긴 인간관과 가치관을 분석했다. 특히 강의에만 머무르지 않고 직접 발제문을 작성하고 토론에 참여하면서 신앙과 문화의 관계를 깊이 성찰할 수 있었다. 12주 과정을 마친 후에는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데이미언 허스트 특별전'을 함께 관람했다. 죽음과 영생, 과학과 의학에 대한 인간의 믿음과 욕망, 예술의 가치 등 현대 사회의 핵심 질문을 다루는 작품들을 살펴봄에, 강의 시간에 배운 세계관적 통찰을 실제 문화 현장에 적용해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시 관람 후에는 작품이

전제하는 인간관과 가치관을 함께 나누며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현대 예술을 해석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과정을 통해 성도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기독교 세계관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서울중앙교회는 성도들이 말씀에 기초한 세계관을 형성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나아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드러내는 건강한 신앙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기대한다. **FAITH & LIFE**




 글쓴이 김남언

서울중앙교회에서 부목사이다. 고려신학대학원(M.Div)를 졸업했다.

서울중앙교회 '현대문화 알아가기' 참가자 소감문

##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관점의 선물을 받았다

예술은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다. 낸시 피어시는 <세이빙 다빈치>를 통해 바로 이 친숙한 예술을 빌려 기독교적 세계관을 설명하고자 했다. '현대문화 알아가기' 수업을 듣는 내내 많은 고민이 교차했다. "그동안 내가 봐왔던 예술은 어떤 세계관을 담고 있었을까? 그 세계관은 성경적 진리에 부합하는가?"라는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다. 한편으로는 "다양하게 확장되어 온 예술가들의 의도와 표현을 기독교적 잣대로만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의문도 들었다. 책에서는 우리 사회에 은연중에 퍼져있는 세계관이 철저히 '이분법적'이라고 말한다.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조화를 추구하는 기독교적 관점과 달리, 현대의 예술과 문화는 '사실(객관)'과 '가치(주관)'를 분리하여 어느 한쪽만을 추구하는 파편화된 경향을 보인다. 한 강의의 발제를 직접 준비했던 시간은 내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발제문을 정리하며, 나 역시 은연중에 세속주의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개인적으로 기존 가치관을 기독교적 세계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보며 스스로 돌아볼 수 있었다. 교육을 마칠 무렵, 세상을 바라 보는 시야에는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관점 하나가 더 추가되었다. 이제는 예술을 접할 때 맹목적으로 수용하거나 기독교적 잣대로 무조건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고 그것을 성경적 진리와 비교해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기르고자 한다. 앞으로 일상에서 마주할 수많은 예술 앞에서 이 새로운 시각을 어떻게 적용해 나갈지, 나 자신에게 스스로 도전이 생겼다. **FAITH & LIFE**


 글쓴이 안순호

서울중앙교회 청년부 소속으로, 20살 대학생(2017) 때부터 출석하고 있다. 현재 증권사 백오피스에서 업체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성도들과 함께 배우는 기쁨

학기별 12주로 이루어진 장년성경공부에서 이번 학기에는 '현대문화 알아가기'를 선택하여 수강하였다. 장년성경공부의 유익은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과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공부는 특별히 신국원 교수님이 함께 해주셔서 전문적인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사실 함께 읽은 '세이빙 다빈치'는 개인적으로는, 혼자라면 절대 샀을 리도, 읽었을 리도 없는 책이다. 그동안 문화를 소비하는 방식도 개인적 감동이나 즐거움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책은 문화의 배경을 이루는 세계관에 대해 알아보고 그 바탕으로 예술 작품을 해석하는 것을 알아가도록 구성되어 있다. 공부하는 내내 그동안 세계관에 대해 무지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마지막 수업을 마친 후 토요일, 수업을 들은 성도들과 전시회를 관람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시간에 그동안 배운 것들이 하나씩 생각나고, 함께 관람한 성도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의 기쁨을 느낄 수 있어서 무척 새로웠다. 이번 수업은 세상 속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성도들과 함께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FAITH & LIFE**

 글쓴이 박혜련

서울중앙교회 50여전도회 소속으로, 대학교 1학년(1998년)부터 서울중앙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 프리드리히 폰 보델슈빙 부자(父子)의 성경적 세계관(2)

최용준 (한동대학교 시 융합학부 교수)



벤틀 재단은 프리드리히 폰 보델슈빙 부자의 성경적 세계관이 구체적인 제도와 공동체로 구현된 대표적 사례로, 신앙과 사회적 실천이 통합된 기독교 사회복지 모델로 발전하였다. 이 재단은 단순한 보호 시설이나 병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현실 속에서 구현되는 공동체를 지향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적 삶, 상호 돌봄의 원리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 오늘날 벤틀은 약 2만 명 이상의 직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기관으로 성장하여 장애인, 정신질환자, 간질 환자, 노숙자, 노인, 아동과 청소년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의료, 재활, 교육, 직업 훈련, 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 등 포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단의 기본 목적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에 머무르지 않고, 가능한 한 자기 결정권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으며, 이러한 사명을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신앙적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벤틀은 1867년 간질 환자를 위한 소규모 시설로 출발하였으나, 폰 보델슈빙 부자의 지도 아래 빠르게 확장되었다. 초기에는 교회와 지역사회, 후원자들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운영되었고, 특히 여성과 남성 봉사 공동체가 형성되어 헌신적인 돌봄을 제공하였다. 이들은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신앙적 소명을 가진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생활과 봉사를 통합한 삶을 실천하였으며, 공동체 내부에서 규율과 책임, 상호 돌봄이 함께 이루어지는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공동체성은 벤틀이 단순한 수용시설을 넘어 삶의 터전이자 신앙 공동체로 기능하도록 만드는 핵심 요소였다. 또한 초기부터 재정 자립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기부와 후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생산 활동과 조직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었다.

벤틀의 중요한 특징은 생활 공동체와 노동 중심 재활 모델이다. 거주자들은 단순히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농업, 공예, 제빵, 세탁, 목공 등 다양한 노동 활동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 형성에 공헌하였고,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는 노동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이해한 폰 보델슈빙의 신학이 실제 운영 원리로 구체화된 사례이며, 노동을 통해 인간의 존엄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더 나아가 이러한 생산 활동은 공동체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외부 의존도를 줄이는 기능도 수행하였다.

벤엘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위기 속에서도 그 정체성을 유지하며 발전해 왔다. 제1차 세계대전과 경제적 혼란은 식량 부족과 재정난을 초래하였고, 나치 시대에는 강제 불임 정책과 T4 정책이라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였다. 초기에는 일부 정책에 제한적으로 협력하는 모습도 있었으나, 장애인 학살이 본격화되자 프리츠 폰 보델슈빙은 이를 거부하고 환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응에 나섰다. 그는 공개적인 대결보다는 행정적 지연, 서류 거부, 환자 은닉, 당국과의 협상, 이송 명단 조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환자 이송을 막고 생명을 보호하려 하였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직원들과 봉사자들의 결속을 강화하여 외부 압력에 대응하는 공동체적 방어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대응은 제도 내부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한 현실적 저항으로 평가되며, 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벤엘은 폭격 피해와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빠르게 재건되었고, 전쟁고아와 난민, 부상자들을 수용하며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이후 복지국가 체제가 확립되면서 벤엘은 국가 제도와 협력하는 동시에 신앙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1960년대 이후에는 대규모 수용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소규모 생활 단위로 지역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이었다.

또한 전문 인력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의료, 심리, 교육,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서비스가 강화되었고, 이용자의 권리와 선택을 존중하는 현대적 복지 개념이 도입되었다. 오늘날 벤엘은 병원, 재활센터, 직업 훈련시설, 교육기관, 정신건강 서비스, 호스피스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복합 복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 호스피스, 뇌손상 환자 치료, 중독 재활 프로그램 등 전문화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역 분산형 운영 구조를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벤엘 재단은 성경적 인간관과 이웃 사랑, 공동체 정신, 노동의 가치, 그리고 책임 있는 사회 참여가 실제 제도와 구조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단순한 자선이나 보호 중심 복지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참여, 자립, 공동체적 삶을 통합적으로 실현하는 모델로 평가되며, 현대 교회와 사회복지 실천에 중요한 방향성과 실천적 통찰을 제공하는 역사적·신학적 모범이라 할 수 있다. **FAITH & LIFE**

#### 글쓴이 최용준



한동대 AI 융합학부 교수이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B.A),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M.Div), 네덜란드 자유대학교(Drs.), 남아공 포체스투름 대학교(Ph.D, 기독교철학)에서 공부했다. 독일 쾰른한빛교회와 브뤼셀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동대 학문과신앙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도전하는 현대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강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학문> 등이 있다.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으로도 섬기고 있다.



# AI 시대 창조론 톺아보기

- 2026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 -

‘2026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가 ‘AI 시대 창조론 톺아보기’이라는 주제로,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주관, 고려신학대학원과 새로남교회 후원으로 고려신학대학원(천안)에서 지난 5월 30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있었다. 3개의 주제 강연과 패널 토의가 있었고, 분과별 논문 발표는 대학원생 세션을 포함하여 28편의 논문 발표자 및 해당 논문 논찬자가 함께 이끌어 주었다.

오전 대학원생 세션(10:00~12:00)에서는 새로남교회 후원 <새로남청년우수논문상>을 수상한 김아름(성균관대학교 교육철학 석박사통합과정)의 “아우구스티누스 종교적 자유교육론의 발전 양상: <참된 종교>를 중심으로”를 비롯한, 박영진(침신대 신학대학원 석사과정), 박재원(성균관대 교육학과 석박사통합과정), 허유찬(충북대 학부생), 권미영(성균관대 교육학과 박사과정), 진은혜(성균관대 교육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김아름(성균관대 교육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이수(한동대 학부생)의 논문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오후 첫 번째 순서 개회식(12:30~13:00)에서는, 박지희 교수(기학연 총무, 건국대)의 사회로, 박동열 교수(기학연 학회장, 서울대 불어교육과)의 개회 인사, 김성수 교수(고려신학대학원 교무처장)의 환영사, 신국원 박사(동역회 이사장 / 침신대 명예교수)의 축사, 김성운 교수(고려신학대학원 학생처장)의 개회기도, 고세일 교수(기학연 연구부학회장, 충남대 로스쿨)의 연구윤리교육, 참석자 전체의 단체 기념 촬영이 있었다.

두 번째 순서 주제 강연(13:00~15:30)에서는, 김철수 교수(조선대 자유전공학부)의 사회로, 양승훈 총장(에스와티니 기독교과대학)의 “한국 창조론 운동의 회고와 전망”, 정대경 교수(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의 “유신진화론에 대한 신학적 변호”, 김아람 교수(한동대 생명과학부)의 “AI 시대, 유전자 기원의 난제에 도전하다 : 논쟁에서 검증으로” 등의 강연이 있었고, 패널토의자 이윤석 박사(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 원장), 차수진 교수(한양대 류마티즘연구원), 강윤희 교수(백석대 컴퓨터공학부)의 논찬 및 전체 토론이 있었다.





세 번째 순서(16:00~18:00)는 분과별 논문 발표였다. 세계관 분과는 양성만 교수(우석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최용준 교수(한동대), 김영록 전도사(세늘교회), 강상우 목사(사회복지 Coram Deo). 사회과학 분과는 고세일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좌장으로 김찬동 교수(충남대), 장원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정종현 교수(이화여대), 소재일 교수(명지대). 경제/경영 분과는 조성표 교수(DGIST 기술경영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김세중 교수(한림대 겸임교수), 이선복 박사(연세대 강사), 이경락 교수(백석대), 교육학 분과는 김보경 교수(전주대)를 좌장으로 유재봉 교수(성균관대), 이한진 교수(한동대), 홍참길 교수(한동대). 인문학(I) 분과는 김철수 교수(조선대)를 좌장으로 문정수 박사(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 연구위원), 최태연 교수(백석대 은퇴교수), 소은희 교수(숙명여대). 인문학(II) 분과는 박동열 교수(서울대)를 좌장으로 최중화 교수(부산장신대), 안승훈 박사(서울대 이스라엘 교육센터). 공연/예술 분과는 이신영 교수(명지대 객원교수)를 좌장으로 이은형 박사(명지대 강사), 강미리 교수(서울예술신학교), 이신영 교수(명지대 객원교수)의 발표와 논찬 및 자유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2026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가 'SI시대 창조론 톨아보기'라는 주제로 열리게 된 의미에 대해, 박동열 교수(기학연 학회장)는 “무에서의 창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최고의 선물입니다. 공허와 혼돈을 뚫고 엄청난 게 풍요로운 창조 세계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비록 오늘날 학교와 가정과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잘 가르치고 있지 않더라도, 이 창조의 진리는 인공지능 기술이 첨여화된 이 시대에 저희 기독교학문연구회가 다시금 재조명해야만 시대적 주제가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학술대회는 모든 참여자에게 SI 시대에 새롭게 도전받는 창조 담론을 다시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 질서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학문 연구가 왜 더 중요한지에 관한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값진 성찰의 기회가 되었다. **FAITH & LIFE**



## 2026년 임원가족수련회 안내

목적 : 임원 간의 단합 및 사역 방안 논의  
 일시 : 2026년 7월 2일(목) ~ 7월 3일(금)  
 장소 : 별무리학교, 금산자연휴양림

## 별무리학교 기독교세계관학교

일시 : 2026년 7월2일(목) 19:00 ~ 21:00

- 1) 공통 강좌 : 기초 강연 '기독교 세계관과 비전'(신국원 이사장, 총신대 명예교수)
- 2) 선택 강좌 : '주제·전공별 그리스도인 교수와의 만남'  
 8개 분과 : 경제·경영(김태항 교수) / 기계공학(장수영 교수, 박문식 교수)  
 / 법학(고세일 교수, 이병주 변호사) / 보건·의학(김지원 교수) / 세계관(유경상 교수)  
 / AI(이상민 박사, 박동열 교수) / 인문학(김철수 교수) / 철학·신학(석종준 교수)

## 2026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 (종료)

주제 : 'AI시대 창조론 톺아보기'  
 일시 : 2026년 5월 30일(토) 13:00~18:00 (대학원생 세션 10:00~12:00)  
 장소 : 고려신학대학원 강의홀 202호  
 내용 : 주제 강연(3편)과 논찬 및 토론 & 분과별 논문 발표(28편)와 논찬 및 토론

## 등재학술지 <신앙과 학문> 31권 2호 (6월 30일 발간)

<신앙과 학문> 31권 2호는 4편의 이월(재심) 논문과 13편이 논문 투고되어, 총 17편의 논문 중 12편이 게재될 예정이다.

##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조직 및 임원

### 사단법인 이사회

명예 이사장 손봉호(서울대 명예교수)  
 이사장 신국원(총신대 명예교수)  
 이 사 김태항(명지대 교수), 박동열(서울대 교수), 박영주(미드웨스턴신학대 교수),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최현일(생명원 대표이사), 양성만(우석대 교수), 조성표(경북대 명예교수), 장수영(포항공대 교수), 최태연(백석대 은퇴교수), 오정호(새로남교회 목사)  
 감 사 박신현(고신대 교수), 임춘택(제주대 교수)

### 실행위원회

실행위원장 김지원(백석대 교수)  
 실행위원 강은정(순천향대 교수), 강진구(고신대 교수), 김기현(로고스서원 대표), 김미영((주) 에이블디벨로프먼트 대표), 김예원(MEW 간사), 김혜정(CUP 대표), 문준호(휴비츠 프로), 석종준(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이병주(기독교법률가회 대표), 안승범(경희대 교수), 이상민(교육학자), 이재희(가천대 교수), 유경상(CTC 대표), 윤현준(숭실대 교수), 윤태형(동서대 교수), 장슬기(별무리학교 교사), 최용준(한동대 교수)

### 사무국

국장 안선자 실장 방윤미

###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박동열(서울대 교수)  
 연구부학회장 고세일(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술부학회장 권오병(경희대 교수)  
 기획부학회장 김철수(조선대 교수)  
 총 무 박지희(건국대 교수)  
 감 사 류현모(서울대 교수), 이명현(인천대 교수)

###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손화철(한동대 교수, 기술철학)

###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

권오병(경희대 교수, 경영학), 김동혁(연세대 교수, 구약학), 김성원(서울신대 교수, 조직신학), 김철수(조선대 교수, 영문학), 신응철(숭실대 교수, 서양철학), 손화철(한동대 교수, 철학), 안소영(경상대 교수, 국제경제학), 염동한(부산대 교수, 물리교육학), 이은실(한동대 교수, 교육학), 임춘택(제주대 교수, 독문학), 조은주(고신대 교수, 간호학), 허계형(총신대 교수, 유아교육학), 송재일(명지대 교수, 법학), 황혜원(청주대 교수, 사회복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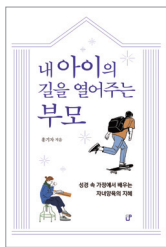


▶ CTC(유경상 대표)

- **지도자 과정** : 7기 기독교세계관교육지도자 기본과정 & 6기 기독교세계관교육지도자 강사과정 진행 중
  - **월드뷰패밀리아카데미 과정** : 대니엘 디포, <로빈슨 크루소> 진행중'
  - **대학 강의** : 아신대 : <기독교세계관>, <철학으로 세상 바라보기> 종강 & 평택대 MTS : <기독교세계관 교육과 코칭>, <기독교 철학> 종강, 평택대 신학과 : <기독교 사상이 탐색>, <기독교 문화관> 종강.
  - **평택대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기독교 세계관 MTS 과정 4기 신입생 모집** : CTC 지도자 과정과 교육 콘텐츠를 바탕으로 만든 신학석사 프로그램. 삶의 모든 영역과 사역 현장에서 기독교세계관을 정립, 분별하며, 현장에서 적용하기 원하는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들을 초대한다.
  - **2026년 기독교 세계관교육 지도자 과정 모집(수시모집)** : 기독교세계관 교육 원리와 실재를 위한 '7기 기독교세계관 교육 기본과정', 어린이세계관교육 위한 '6기 기독교세계관 강사과정'을 모집한다
  - **청소년 하이세 아카데미 캠프(6월 예정)** : 프란시스 웨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 **출판 계획** : <다음 세대의 시작, 부모>(부모들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 지침서),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 꿈이 뭐예요?>
- ※ 문의 & 참여 신청: CTC 사무국(010-3673-8439), CTC 홈페이지(www.ctcworldview.com).
- ※ 2026년도에도 '기독교 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다음세대 세우기'를 목표로 하는 CTC 사역에 동역회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도서출판 CUP(김혜정 대표)

신간 소식



**<내 아이의 길을 열어주는 부모>** 홍기자 지음 | 376쪽 | CUP

*"성경 속 가정에서 이야기로 배우는 자녀 양육의 지혜"*  
*"세상에 완전한 부모는 없지만, 길을 열어주는 부모는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교회 안 다닐래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안 믿고 싶어요."

이 말은 더 이상 어느 한 가정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교회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사역의 자리에서, 기독교 교육 현장에서, 그리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려는 수많은 가정에서 같은 고민이 반복되고 있다.

왜 믿음은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무엇이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걸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다시 믿음의 길을 열어 줄 수 있을까? <내 아이의 길을 열어주는 부모>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이고 실제적인 길을 제시한다.

저자 홍기자 교수는 오랜 현장 사역과 기독교 교육학 연구를 바탕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오늘의 언어로 풀어낸다. 이론에 머물지 않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교회와 가정의 연계, 다음 세대의 신앙 형성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정보(2026년 4월, 2026년 5월)

수입 항목	세부 항목	2026년 4월	2026년 5월	지출 항목	세부 항목	2026년 4월	2026년 5월
경상수입	이사회비	640,000	540,000	인건비	일반급여	4,855,000	4,855,000
	임원회비	800,000	710,000		기타급여	400,000	400,000
	일반회비	4,430,000	3,840,000		소계	5,255,000	5,255,000
	기관후원금	3,150,000	3,25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0	0
	월드뷰후원금	0	0		사무실관리비	0	0
	사무실후원금	0	0		통신비	130,914	135,789
	CTC후원금	60,000	60,000		우편료	0	1,240
	VIEW후원금	960,000	900,000		소모품비	0	0
	기타후원금	0	0		비품	1,831,000	0
	월보구독료	235,000	250,000		식비	381,700	304,400
	학술지원금	0	0		수선비	0	0
	세계관사역지원금	0	0		복리후생비	625,820	563,320
	기타	0	100,295		퇴직연금	439,230	439,230
					예수금 지출액	468,430	488,080
			회의비		0	0	
			회계용역비		55,000	55,000	
			여비교통비		0	0	
			서무비	55,000	55,000		
			기타(지급수수료)	99,174	100,408		
			소계	4,086,268	2,142,467		
	소계	10,275,000	9,650,295				
기타수입	일반이자		0	연구지원비	CTC후원금	59,725	59,725
	법인이자	0	0		VIEW후원금	891,640	891,640
	법인세환급금	250,950	0		소계	951,365	951,365
	기타수입	0	0	출판(회지)	인쇄비	2,651,880	0
	기금차입	0	0		발송비	636,520	0
	결산이자	0	0		홈페이지/홍보비	222,200	70,000
	예수금 수입액	506,630	508,820		소계	3,510,600	70,000
				기타	세금	55,240	0
			잡비		0	0	
			소계		55,240	0	
	소계	757,580	508,82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일반등록	0	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강사료	100,000	291,000
	세계관기타수입	0	0		세계관행사준비	0	0
					세계관기타	0	0
					소계	100,000	291,000
학회	학회이사회비	140,000	120,000	학회	학회강사료	0	1,600,000
	학회행사수입	260,000	1,270,000		학회장소사용료	0	0
	자료집판매	0	0		학회자료제작비	0	0
	학회지판매	0	0		학회홍보및기타	21,390	2,615,350
	학술지심사비	420,000	210,000		학술지인쇄비	1,747,700	0
	학술지계재료	44,200	0		학술지발송비	247,120	0
	저작권료	0	0		학술지심사료	810,000	0
	학회기타수입	0	1,000,000		학회기타	0	0
					소계	2,826,210	4,215,350
	소계	864,200	2,600,000				
전월 미수금	전월 CMS입금	972,100	940,040	차월이월 수입금	이달 CMS미수금	940,040	1,029,050
	전월 이니시스입금	30,000	150,000		이달 이니시스 미수금	150,000	0
	소계	1,002,100	1,090,040		소계	1,090,040	1,029,050
	당월 수입액	12,898,880	13,849,155		당월 지출액	17,874,723	13,954,232
	전월 이월액	26,518,210	21,542,367		차월 이월액 (잔액)	21,542,367	21,437,290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회원후원

(2026년 4월)

5천 강대용, 공승건, 박도명, 구성덕, 권지연, 김경희, 김기용, 김기현, 김대용, 김봉현, 김삼욱, 김셋범, 김성욱, 김성찬, 김승택, 김영주, 김정명, 김점성, 김정원, 김형근, 김화년, 김희원, 노승욱, 박광제, 범경철, 생명의강, 손영경, 송시섭, 신종철, 유충열, 이경미, 이기훈, 이덕재, 이수인, 이원재, 이종혁, 이지영, 이향숙, 임소연, 임형준, 전보규, 전은경, 조성진, 지경순, 진성자, 최연우, 최원길, 한배선, 허신아, 홍승기, 7천5백 강찬진, 박상균, 손화정,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운재, 고철웅, 구준호, 권경호, 김원평, 김경식, 김경진, 김광태, 김국화, 김규욱, 김남진, 김도형, 김동연, 김민성, 김병국, 김병용,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삼욱, 김셋범, 김성규, 김세령, 김세미, 김수빈, 김수진, 김수홍, 김신정, 김아람, 김아론, 김영숙, 김영운, 김영호, 김용석, 김유니스, 김은덕, 김재현, 김재정, 김정일, 김정은, 김정호, 김준원, 김종일, 김지근, 김진성,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정, 김혜성, 김혜정, 김홍빈, 김화선, 김희년, 김희영, 남기찬, 남상욱, 남선우, 남현우, 라영환, 류지호, 류현모, 류화원, 모상근, 모아론, 박능안, 박동현, 박명욱, 박민균, 박상희, 박승호, 박시은, 박은주, 박준모,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두산, 백요한, 백은석, 부천평안교회,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하은, 손현탁, 송은희, 송철호, 신동일, 신성만, 신현정, 신호기, 심은희, 심정연, 안석, 안승범, 양성진, 양성철, 양승규, 양행모, 양혜영, 연혜민, 염동한, 오민용, 오성호, 오익석, 오주희, 유건호, 유기남, 유상한, 유승민, 유영준, 유재은, 유해무, 윤 철, 윤상찬, 윤숙자, 윤영배, 윤운순, 윤재림, 윤태형, 이경락, 이경직, 이다니엘,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병수, 이병주, 이봉근, 이상수, 이상진, 이상희, 이선경, 이선복, 이상근, 이상수, 이세정, 이수연, 이순진, 이승업, 이서영, 이아름, 이언구, 이연의, 이요한, 이우훈, 이원도,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택, 이윤희, 이정길, 이정일, 이종철, 이종섭, 이지연, 이진희, 이창우, 이창훈, 이혜리, 이행로,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지연, 임준택, 장경근, 장슬기, 장승하, 장은혜(양종태),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정동관, 정봉현, 정선경, 정용수, 정유진, 정희원, 조경덕, 조명자, 조미연,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연, 조주영, 조현욱, 조현우, 조현지, 조혜선, 주호영, 지의정, 차봉준,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삼열, 최영, 최영철, 최우성, 최은정, 최한빈, 최현식, 최혜경, 추진원, 표민호, 한동빈, 한신영, 허연, 허현, 홍구화, 홍종민, 황기철, 황선연, 황세한, 황세훈, 1만5천 김선하, 김준원, 박성태, 2만 강용란, 기민석, 김보경, 김용식, 김유리, 김인수, 김정욱, 김태진, 박기모, 박은식, 박홍식, 빛과소금교회, 안선자,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이근, 이기서, 이연우, 정훈, 채기현, 최현중, 허정도, 2만5천 한윤식, 3만 고세일, 김경민, 김동혁, 김두환, 김예원, 김용봉, 류동규, 마민호, 문준호, 박신현, 배덕만, 서성록, 손화철, 송현아, 신혜경, 안경상, 우정현, 이은실, 장유정, 전상홍, 정민, 정유경, 정의준, 최동진, 최용준, 황상준, 황정진, 황혜원, 4만 문석순, 우병훈, 5만 강다일, 김성준, 김중우, 김태훈, 김택호, 양승훈, 윤석찬, 윤현준, 이대경, 이상민, 전희경, 정은애, 6만 류영식, 석종준, 송중철, 장덕수, 7만 주재영, 10만 김미영, 김지원, 김태환, 박영주, 손봉호, 신영순, 윤완철, 이성현, 장수영, 12만 김기홍, 김민철, 김재민, 박안나, 박정일, 서미경, 최태연, 15만 최현일, 30만 김신화,

계 7,215,000원

##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VIEW후원), 다운공동체교회, 일원교회, 10만 개복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더세움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언약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성의교회, 아름빛교회, 예수비전교회, 예수항남교회, 중앙제일교회, 천안아산주님의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충신교회, 태화교회, 횡동교회, 15만 삼일교회, 20만 남서울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분당우리교회,

계 3,200,000원

전체 10,415,000원

## 회원후원

(2026년 5월)

5천 강대용, 공승건, 박도명, 구성덕, 권지연, 김경희, 김기용, 김기현, 김대용, 김봉현, 김삼욱, 김셋범, 김성욱, 김성찬, 김승택, 김영주, 김정명, 김점성, 김정원, 김형근, 김화년, 김희원, 노승욱, 박광제, 범경철, 생명의강, 손영경, 송시섭, 신종철, 유충열, 이경미, 이기훈, 이덕재, 이수인, 이원재, 이종혁, 이지영, 이향숙, 임소연, 임형준, 전은경, 조성진, 지경순, 진성자, 최연우, 최원길, 한배선, 허신아, 홍승기, 7천5백 강찬진, 박상균, 박성태, 손화정,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운재, 고철웅, 권경호, 기민석, 김원평, 김경식, 김경진, 김광태, 김국화, 김규욱, 김남진, 김도형, 김동연, 김민성, 김병국, 김병용,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삼욱, 김셋범, 김선혜, 김성규, 김세령, 김수빈, 김수진, 김수홍, 김신정, 김아람, 김아론, 김영숙, 김영운, 김영호, 김용석, 김유니스, 김유리, 김은덕, 김재현, 김재정, 김정일, 김정은, 김정호, 김준원, 김종일, 김지근, 김진성,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정, 김혜성, 김혜정, 김홍빈, 김화선, 김희년, 김희영, 남상욱, 남선우, 남현우, 다니엘 김, 라영환, 류지호, 류현모, 류화원, 마민호, 모상근, 모아론, 박능안, 박동현, 박명욱, 박민균, 박상희, 박승호, 박시은, 박은주, 박준모,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두산, 백요한, 백은석, 부천평안교회,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하은, 손현탁, 송은희, 송철호, 신동일, 신성만, 신현정, 신호기, 심은희, 심정연, 안석, 안승범, 양성진, 양성철, 양승규, 양행모, 양혜영, 연혜민, 염동한, 오민용, 오성호, 오익석, 오주희, 유건호, 유기남, 유상한, 유승민, 유영준, 유재은, 유해무, 윤 철, 윤상찬, 윤숙자, 윤영배, 윤운순, 윤태형, 이경락, 이경직, 이근호, 이다니엘,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병수, 이병주, 이봉근, 이상수, 이상진, 이상희, 이선경, 이선복, 이상근, 이상수, 이세정, 이수연, 이순진, 이승업, 이서영, 이아름, 이언구, 이연의, 이요한, 이우훈, 이원도,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택, 이윤희, 이정길, 이정일, 이종철, 이종섭, 이지연, 이진희, 이창우, 이창훈, 이혜리, 이행로,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지연, 임준택, 장경근, 장슬기, 장승하, 장은혜(양종태),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정동관, 정봉현, 정선경, 정용수, 정유진, 정진우, 정희원, 조경덕, 조명자, 조미연,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연, 조주영, 조현욱, 조현우, 조현지, 조혜선, 주호영, 지의정, 차봉준,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삼열, 최영, 최우성, 최은정, 최한빈, 최현식, 최혜경, 추진원, 표민호, 하태실, 한신영, 허연, 허현, 홍구화, 홍종민, 황기철, 황선연, 황세한, 황세훈, 1만5천 김선하, 김준원, 박성태, 2만 강용란, 고선욱, 김보경, 김용식, 김유리, 김인수, 김정욱, 김태진, 문석순, 박기모, 박은식, 박해일, 박홍식, 안선자,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윤재림, 이근, 이기서, 이연우, 정훈, 채기현, 최현중, 최동진, 최용준, 추명순, 황정진, 황혜원, 4만 우병훈, 5만 강다일, 김중우, 김태훈, 김택호, 양승훈, 윤석찬, 윤현준, 이대경, 이상민, 전희경, 정은애, 6만 석종준, 송중철, 엄고은, 6만7천5백 백예은, 10만 김태환, 박영주, 손봉호, 신영순, 윤완철, 이성현, 이신영, 이태혁, 장수영, 12만 김민철, 최태연, 14만 김정철, 15만 강상우, 김대민, 최현일,

계 6,470,000원

##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VIEW후원), 다운공동체교회, 일원교회, 10만 개복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더세움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새언약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성의교회, 아름빛교회, 예수비전교회, 예수항남교회, 중앙제일교회, 천안아산주님의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충신교회, 태화교회, 횡동교회, 15만 삼일교회, 20만 남서울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분당우리교회,

계 3,300,000원

전체 9,770,000원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편집위원 소개

<b>발행인</b>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b>편집장</b>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 이사장
<b>편집위원</b>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서울대 Ph.D, 실행위원
	김반석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 졸업, 도쿄대 인문사회계연구과 박사과정
	김유준	서울 주빌리교회 담임목사, 교회사, 연세대 Ph.D, 연세대 연구교수, 캠퍼스 사역전문가
	김셋별	홍콩대 심리학과 교수, 교육심리학, 오하이오주립대 Ph.D, 정회원
	김지원	백석대 교수, 물리치료학, 연세대 Ph.D, 실행위원장
	김혜정	도서출판 CUP 대표, 실행위원
	문준호	휴비츠 프로, 물리학, 카이스트 Ph.D, 실행위원
	박동열	서울대 교수, 언어학, 파리소르본대학교 Ph.D, 이사
	박영주	미드웨스턴 신학대학 교수, 교육학, 컬럼비아 인터내셔널 대학교, Ph.D, 이사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미디어와 문화학, 콜로라도대, Ph.D, 실행위원
	박홍식	서울대 교수, 서양사, 괴팅엔대 Ph.D, 前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문화원장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선교사, 종교철학, 침신대 Ph.D, 기획위원장
	양성만	우석대 교수, 서양철학, 고려대 Ph.D, 이사
	윤현준	승실대 교수, 기계공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이병주	기독교법률가회(CLF) 대표, 변호사,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 실행위원
	이상민	번역가, 교육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적정기술학, 미시간대 Ph.D, 이사	
전명희	한동대 교수, 사회복지학, 연세대 Ph.D, 정회원	
조성표	경북대 교수, 재무회계학, 연세대 Ph.D, 이사	
최태연	백석대 교수, 철학, 베를린 자유대 Ph.D, 이사	
최현일	샘병원 의사, 연세대 Ph.D, 이사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장, 문학, 아우그스부르크대 Ph.D, 정회원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 목사, 신약학, 영국 서리대 Ph.D, 정회원	
<b>편집실무자</b>	석종준	사무국



손봉호

신국원

김대인

김반석

김유준

김셋별

김지원

김혜정

문준호

박동열

박영주

박진규

박홍식

석종준

양성만

윤현준

이병주

이상민

장수영

전명희

조성표

최태연

최현일

추태화

황영철



## <신앙과 학문> Faith & Scholarship

# 논문 투고 안내

<신앙과 학문>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9월호(31권 3호)  
투고 마감일은 7월 31일입니다.

- <신앙과 학문>은 한국연구재단(KCI) 등재 학술지입니다.
- '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 1996년 이래 발행하고 있으며 '신앙과 일반학문'의 통섭을 지향하는 국내 유일의 등재학술지로 다양한 학제간 연구 논문을 모집합니다.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회원은 누구든지 투고할 수 있습니다.
-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연 4회 발행하며 원고 마감은 각호 발행일 약 60일 전입니다.  
(각호 투고 마감일: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 2025년 9월 22일자로 개정된 논문투고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 \* 투고 규정 8.(3)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한 경우 각주 예시 확인
- \* 투고 규정 10. 게재료 30만원(연구비 지원의 경우 40만원), 전일제 대학원생 15만원으로 게재료 인하, 심사로 7만원 신설
- \* 연구윤리규정 제5장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지침추가
- \* 논문 심사 세칙 제2조 (5)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다음 호에 재투고하여 재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 세 안 내**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http://www.worldview.or.kr)) '기독교학문연구회' 항목을 클릭하여 참고하십시오.

**일 반 문 의** [gihakyeon@gmail.com](mailto:gihakyeon@gmail.com)(사무국, 학회) 02-754-8004

**학술지문의** [faithscholar@naver.com](mailto:faithscholar@naver.com)(투고, 심사) 02-3272-4967

\* <신앙과 학문>은 한국연구재단(KCI) 윤리규정을 준수합니다.

